Weekly 공감
2013.02.04 NO.195
korea.kr/gonggam

중점기획
날다 나로호! 열다 우주시대 P36~46

기획특집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설 P21~35

딸기 로열티 시대 연 '딸기박사' 이종남 P54~55

열두 달 소원대로 탈 없이…

김열규
서강대 명예교수·민속학자

음력 정월 초하루는 특별히 설이거나 설날이라고 불렀다. 온 겨레가 반기고 받들고 섬기는 명절의 으뜸이었다.

설은 '묵은 설'로 비롯한다. 한 해가 저물기 직전 섣달 그믐날이 곧 묵은 설이다. 묵은 설날이 되면 사람들은 온 마을을 돌며 어른들께 인사를 올렸다. 그러면서 묵힌 은혜에 감사드리고 신세를 갚고 빚도 갚고는, 묵은 한 해를 말끔하고 산뜻하게 정리했다. 이것이 바로 '묵은세배'다. 묵은 한 해를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설을 맞자는 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복조리'의 구실과 뜻이 두드러져 드러나게 된다. 조리는 가느다란 대나무를 국자 모양으로 엮어 만든 것으로 곡식을 이는 데 쓰던 생활도구다. 주부들은 섣달 그믐날 밤 자정, 곧 열두 시에 맞춰 새 조리를 대청마루 끝 기둥에 걸고는 그것을 굳이 복조리라고 불렀다. 곡식 찌꺼기 일어내듯 묵은 해의 묵은 때를 말끔히 털어내고는 곱고 맑은 새해를 마중하자고 든 것이다.

묵은 설 보내고 바로 그 다음날 사람들은 설을, 설날을 맞이했다. 미리 말끔하게 청소한 집 안은 설날 잔치로 설레었다. 조상에게 차례를 올리고는 이내 온 가족이, 온 이웃이 깨끗하고 말쑥하게 옷차림을 하고는 '설 세배'를 주고받았다.

설날 행사는 '묵은 설'로 비롯해 정월 대보름까지 열엿새에 걸쳐 벌어졌다. 초하루 지나고 처음으로 찾아 드는 열두 날을 일년 열두 달에 견주고는 각기 그달그달 어울리는 행사를 했다. 그래서 열두 달이 소원대로 뜻대로 탈없이 지나가 주기를 빌고 또 빌었다.

아이들이나 자식들이 세배를 올리면 어른들은 "복들 받아라!" 하고 절을 받았다. 설빔을 차려입은 꼬맹이들에게는 세뱃돈이 듬뿍듬뿍 쥐어졌다. 떡국을 비롯해 그야말로 산해의 진미와 진수성찬으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린 아침 밥상으로 설 잔치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

그러나 설 잔치가 이것으로 끝날 수는 없었다. 초하루 지나고 처음으로 찾아 드는 자·축·인·묘 등 12간지로 매긴 열두 날을 일 년 열두 달에 견주고는 각기 그달그달 어울리는 행사를 했다. 그래서 열두 달이 소원대로 뜻대로 탈없이, 곱게, 참하게 지나가주기를 빌고 또 빌었다. 그렇게 열나흘 지난 다음날인 음력 15일을 대보름이라고 모셔 받들었다. 오곡밥에 갖가지 나물반찬을 갖추어 먹는가 하면 개암 부숴먹기를 했다. 우두둑 깨물어 개암이 부서지면 재앙도 물러난다고들 믿었다.

그러다 달이 동산에 뜨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달놀이 판을 벌였다. 생솔 가지를 비롯한 나뭇가지와 짚북데기로 짜맞추어 커다란 원추형 구조물을 만들어 달집을 짓고는 불을 질렀다. 달집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 사내들은 달음질로 그 위를 뛰어넘었다. 이같은 '달집의 불놀이'로 달의 기운을 받아 몸과 마음이 정갈하게 된다고들 믿었다.

이렇게 묵은 설날 이후 자그마치 열엿새에 걸쳐 설날행사가 벌어졌다. 그렇게 치른 설날로 해서 새해를 한 점 티도 없이 맑고 곱게 치르게 되리라 믿은 것이다. G

Contents

195호
2013.02.04 통권 296호

표지 이야기 | 전 국민이 고대했다.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Ⅰ)가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다. 두 번의 실패 이후 세 번째 성공. 발사체는 나로과학위성을 제 궤도에 올려놨다.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인의 희망도 제 궤도에 올려놨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획특집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설

숨가쁘게 산다. 현대인들의 초상이다. 글로벌 시대와 함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삶에 여유가 없다 보니 가족과 친지도 조금씩 멀어진다. 이런 한국인들에게 민족의 대명절 설은 진정한 오아시스다.
고향을 오가는 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유로운 마음이다. 모처럼 만나는 가족의 이야기도 먼저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수다.

21

36

48

중점기획_나로호 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식

16

위클리 공감 korea.kr/gonggam
발행일 2013.02.0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887
정기구독 희망하시는 분은 02-2625-3294로 연락주십시오. 현재 구독자이지만 구독을 희망하지 않으신다면 02-2625-3294 또는 jjsmall@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독자마당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2월 19일(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위클리 공감〉 이 기사!

막연했던 해외 인턴 지원, 실용적 정보로 용기 얻어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위클리 공감〉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기사를 가장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주위의 친구, 선배들이 다들 취업난에 시달리는 모습을 흔히 봅니다. 나날이 채용시장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며 답답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때 해외취업을 모색하는 것도 새로운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인턴을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위클리 공감〉 194호에서 실용적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사에 나온 정보를 길잡이 삼아 해외 인턴에 관한 정보를 차곡차곡 모으려고 합니다. 〈위클리 공감〉이 이런 저를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

이런 기사 다뤄주세요 개인적으로 정부 부처들에서 제공하는 인턴 일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상세한 정부의 청년 인턴 정책정보와 함께 현재 정부기관에서 인턴을 하는 경험자들의 생생한 경험담도 〈위클리 공감〉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더 많이 다뤄지면 앞으로 제가 인턴 지원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클리 공감〉에서 유익하고 감동을 주는 기사를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룡빈 (학생·서울 성북구 안암동)**

지난호를 읽고

연탄은행 대표 나눔철학 감동

193호 '나눔은 행복한 투자'의 허기복 연탄은행 대표 인터뷰 기사를 읽고 제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솔직히 그동안 연탄은행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는데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단체인 줄 〈위클리 공감〉을 통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섬김을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고 "나눔은 이자가 솔솔 붙는 행복한 투자"라는 말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네요. 이런 분들이 있기에 올 겨울은 유난히 포근하리라 생각합니다. **최용범 (직장인·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겨울철 독감 예방 정보 큰 도움

최근 잦은 기침과 콧물로 고생했습니다. 마침 193호를 읽고 무시해서는 안되겠다 싶어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주의사항도 자세히 적혀 있어 도움이 됐습니다.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니 모두 고맙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 청년장애인 고용 관련 기사도 제 생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장애인고용을 불안하게 바라보던 시각을 걷어주었습니다. **김확실 (자영업·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세종시 알고 보니 좋은 점 많아

193호 '주말부부 25년 만에 아내와 한 둥지'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가족과 떨어지거나 장거리 통근을 하게 됐다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다른 매체를 통해 자주 접했습니다. 그런데 '세종통신' 기사를 읽고 나니 세종시로 이주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균형발달의 상징적 도시인데다 자녀들 교육문제에 대한 근심도 덜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경석 (학생·대전 중구 문화동)**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노력 믿음직

193호 기획특집 가운데 '청년고용 우수기업' 편을 읽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일이 늘어나 사람을 더 채용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도 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경영 덕목을 보니 취업을 앞둔 청년으로서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취업준비가 힘들지만 희망이 보여 손에 쥔 펜대에 더욱 힘이 들어갑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과 기업이 많아지는 2013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영민 (학생·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도로명주소 뒤 상세주소 부여 신청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입니다. 1월 1일부터 원룸·다가구주택·상가건물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아파트와 같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건물이 소재한 시·군·구의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 범위 원룸·다가구주택·공장·상가 등(공동주택 제외)
▶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해 상세주소 부여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 등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정부 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 우편 및 방문접수 : 해당 건물의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 도로명주소 담당
▶ 신청서류: 신청서, 상세주소 신청도면 등

유의사항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 신청

문의 시·군·구의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부서

워크넷 서비스 향상 아이디어 공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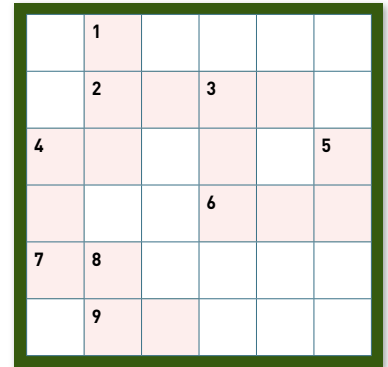
한국고용정보원이 국가가 운영하는 취업 포털 사이트 워크넷 (www.work.go.kr) 서비스를 발전시킬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공모기간 2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응모방법 홈페이지 접수(www.work.go.kr/idea)
공모주제 워크넷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시상내역 대상 1명(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2명(상금 300만원), 우수상 5명(상금 100만원), 장려상 10명(50만원)
유의사항 ▶ 국내 타 취업 사이트에서 이미 서비스 중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다른 응모자와 내용이 유사할 경우 먼저 접수한 내용 우선 선정
▶ 심사를 통해 응모작이 시상 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시상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문의 workidea@keis.or.kr, 1577-7114

바로잡습니다

194호(1월28일자) 5면 낱말 맞추기 '세로 4' 뒤의 문안 "〈위클리 공감〉은…보내 드립니다"는 잘못 들어간 단락이기에 삭제합니다.
7면 '4대강살리기사업' 그래픽 4대강 보의 구조설명 중 '불받이공'은 '물받이공'의 오기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14면 그래픽뉴스 하단 '서울 G20정상회의 성공 개최로 국격 상승' 중 태극기와 한반도 위치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 있기에 바로 잡습니다.
37면 '해외 인턴십 참가 3인 좌담' 기사 중 오른쪽 단 중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나?" 답변 내용이 본문 서체가 아닌 고딕 서체로 들어갔기에 바로 잡습니다.
42면 사진설명 중 김기용 경찰청장은 김기용 경찰청장의 오기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낱말맞추기

	1				
	2		3		
4					5
			6		
7	8				
	9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195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2월 21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2. 느릅나무과의 낙엽활엽교목. 고향마을을 오랫동안 지키는 친근한 나무죠.
4. 판소리나 잡가 등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죠.
6. 좋은 때. "춘삼월 ○○○에 나들이를 다녔지."
7.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 "그는 ○○가 강한 사람이다."
9. 옛날에는 아침에 이 새가 와서 짖으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했죠.

세로
1.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 이번 설에도 고생이 많았구나."
3. ○○○는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담아 드넓은 우주로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5. 귀성길이 막히고 주부와 여성들이 좀 힘들어도 조상을 기리고 가족 친지 간에 정을 나누고…. 그래서 넉넉하고 행복한 날입니다.
8. 조금 전.

〈위클리 공감〉 193호(1월 21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개편 2 적중 3 소비재 4 동반 5 소방관
세로 1 개중 2 적재적소 3 소반 4 동장군 6 관심

〈위클리 공감〉 193호 '공감 퍼즐' 당첨자
이삼복·대전 대덕구 생산길 장춘식·강원도 삼척시 교동
신잔디·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천봉기·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김영혜·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94호 낱말 맞추기 정정합니다.
194호(1월 28일자) 5면 낱말 맞추기에서 세로 낱말이 잘못 게재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잘못 인쇄된 세로 낱말 4번과 5번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로 낱말
4. 어금니가 다 난 뒤 맨 안쪽 끝에 새로 나는 작은 어금니
5. 학생의 아버지나 어머니. 학생의 보호자

※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

더 이상 머뭇거릴 일 없다

정부·제주도, 3차 시뮬레이션으로 15만톤급 크루즈선 안전한 입출항 가능 재확인

정부와 제주도는 공동으로 실시한 제주민군복합항 시뮬레이션을 통해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군복합항 관련 논란이 더 이상 재연되지 않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2015년까지 제주민군복합항이 세계적 관광미항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제주민군복합항)에 대한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3차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국무총리실과 제주도는 지난 1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이동섭 한국해양항만학회장을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1월 17, 18일 이틀간 대전 대덕연구단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뮬레이션을 시현했다.

그 결과 제주민군복합항은 풍속 27노트의 강풍이 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밤낮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입출항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뮬레이션은 풍속 27노트, 외측(남) 방파제에 15만톤 크루즈선 1척이 계류한 상황에서 또 다른 15만톤급 크루즈선 1척이 내측(서) 방파제에 입항하는 가장 어려운 조건 아래서 실시됐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지침에 따른 기술적 평가기준인 근접도, 제어도, 운항자 평가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 입출항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 시뮬레이션에서 직접 크루즈선을 운행한 도선사들도 현재의 항만 구조에서 입항과 선회에 문제가 없다는 일치된 결론을 내놨다.

지난 1월 17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민군복합항 공사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공동으로 제주민군복합항에 대한 3차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안전 입출항을 확인했다.

세 번째 실시한 이번 시뮬레이션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의 도선사가 번갈아 총 16회의 시뮬레이션을 시현했다.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에는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관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했다.

정부는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제주민군복합항 관련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해 2015년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민군복합항은 지난 2010년 공사가 시작된 이래 10회 15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돼 공정에 차질을 빚은 것은 물론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공사 시작 이후 10회 15개월 중단돼 막대한 예산 낭비

오는 2015년까지 모두 9,805억원을 투자하는 제주민군복합항은 강정해안에 해군기동전단 함정과 대형 크루즈선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49만평방미터 규모의 항만·육상시설로 지어진다.

제주민군복합항은 지난 1993년 12월 합동참모본부가 우리의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데서 출발했다.

2007년 5~6월 당시 참여정부가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강정마을로 건설지역을 확정했으며,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뒤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를 지역발전을 겸비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해 2010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제주민군복합항은 동서남해를 오가며 감시할 수 있는 '길목(Choke Point)'에 위치하며, 유사시 전 해역으로 신속하게 전개가 가능한 해양주권 보호와 국익 증진의 최적지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해양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갈등이 고조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특히 중국은 '이어도를 포함한 중국 관할해역을 해양감시선과 항공기로 정기 순찰할 것(2012년 3월)' '무인항공기 이용을 확대해 이어도를 포함한 관할해역에 대한 종합관리와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2012년 9월)'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제주도의 공동 시뮬레이션 시현으로 안전성이 재확인된 제주민군복합항은 향후 해양주권 신장의 전초기지로서 역할뿐 아니라 관광미항으로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

글·박경아 기자

조감도

제주민군복합항 개요

사업내용 2006~2015년 9,805억원 투자, 강정 해안에 해군기동전단 함정과 대형 크루즈선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

기지규모 49만㎡

항만공사 함정 20여 척, 15만t 크루즈 2척 동시 입항 가능

육상공사 지휘·정비·종교·복지·체육시설 등

공사진행 2012년 12월 말 기준 총 9,805억원 중 2,684억원(27.5%) 집행. 항만공사 공정률 30%

제주민군복합항 추진 경과

시기	내용
1993년 12월	제주해군기지 소요 결정(합참)
2007년 5~6월	강정마을로 건설지역 확정(참여정부)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국방부에 건의(제주도, 5월 22일) → 강정마을로 확정(국방부, 6월 8일)
2008년 9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 결정(국가정책조정회의)
2010년 1월	항만공사 착수
2012년 1~2월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 권고에 따라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운영
2012년 2월	지역발전사업계획 확정(국가정책조정회의) * 총 37개 사업, 1조771억원 (국비 5,787억원, 지방비 1,710억원, 민자 등 3,274억원)
2013년 1월	반대 단체가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국방부 승소(대법원) * 반대 단체와 관련된 아래 소송에서 국방부·제주도·해군 모두 승소 –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소송 (국방부 승소, 2012년 7월) – 공유수면매립승인처분취소소송 (제주도 승소, 2012년 5월) –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해군 승소, 2011년 8월)
2012년 11월 28일 ~2013년 1월 31일	정부·제주도 공동 추가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일러스트 박소정

여러 문제 얽힌 가정에 원스톱 지원

절망에 빠진 주민 찾아 해법 제시… 맞춤형 복지로 불행 악순환 끊어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주거·의료·신용·일자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건복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들었다. 자신이 처한 문제를 '산 넘어 산'으로 생각하고 절망에 빠졌던 주민들이 지원단을 만나 새로운 희망을 얻고 있다.

충북 단양군에 사는 산불감시원 강모 씨는 지적장애인을 포함해 다섯 자녀를 둔 가장이다. 강씨의 직업은 봄·가을에 주로 일하는 사실상의 비정규직이다. 강씨의 월평균 소득이라야 80만여 원에 불과하다. 강씨는 이 돈으로 일곱 식구의 생계를 꾸려간다. 강씨네 가족이 함께 사는 23평방미터짜리 좁은 집이 그의 생활수준을 잘 말해준다.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생활비로 강씨의 다섯 자녀의 교육은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다. 보다 못한 지역 복지기관이 관할 군내 희망복지지원단에 강씨의 딱한 사연을 전했다.

지원단은 강씨를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에 포함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원단은 우선 군 교육청과 연계해 강씨 자녀들에게 월 2회 가정방문교육을 제공했다. 강씨는 또 지원단을 만나 가사지원을 받으면서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자녀양육 문제를 해결했다. 이와 함께 지원단은 지역 독지가와 복지재단 등의 후원으로 66평방미터 규모의 집을 새로 짓도록 적극 돕기도 했다.

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은 강씨처럼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종합 복지지원을 제공한다. 달리 말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인 셈이다. 또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생활의 변화상을 점검하면서 관리까지 해준다.

지난해 5월까지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군·구별로 230개 지원단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시·군·구 지원단마다 평균 10여 명의 지원단원이 활동한다.

30분 내 상담받고 방문조사 착수

지원단의 복지 프로그램이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점은 동시다발적, 다각적 접근을 한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복지지원 정책은 대체로 단편적이고 단선적이었다. 소득이 부족하면 일자리를 알선하고, 주거가 불안하면 살 집을 마련해주는 식이었다.

지원단은 이런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분리됐던 지원체계도 통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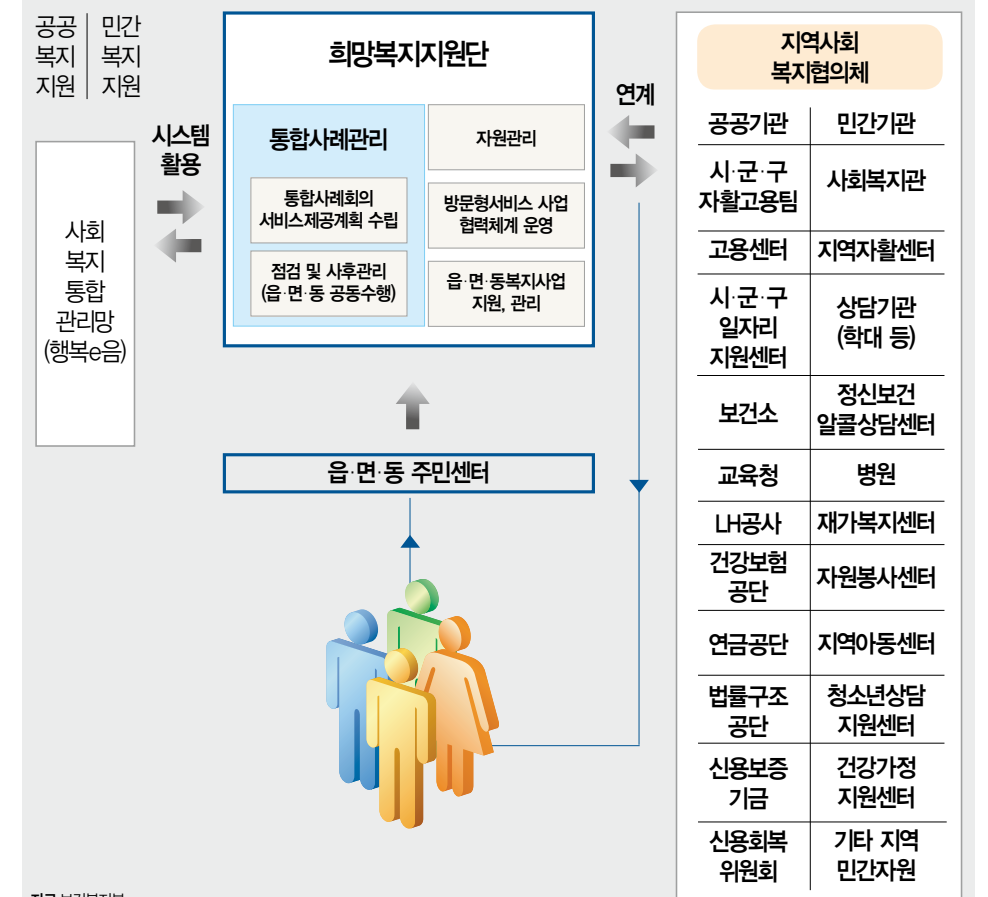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지원단은 이같은 정책방향을 '맞춤형 복지 실현'이라고 말한다. 2011년 7월 정부가 마련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 개개인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였다. 정부가 '맞춤형 복지'에 힘을 쏟는 이유는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정부의 복지예산이 늘어나는데도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혜택은 적다는 판단에서다.

지원단의 또 다른 장점은 원스톱 체계다. 민원인이 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한다. 실질적 어려움이 무엇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 처방전을 내놓는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연계 대상 가구'와 '사례관리 대상 가구'로 구분한다. 상황이 열악할수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분이다.

서비스연계 대상 가구는 지원단이 직접 관리에 나설 정도는 아니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구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단은 동시에 보건·복지·고용 등 취약분야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여러 공공·민간기관과 연계협력해 종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역보건소·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신청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지원단이 적극적으로 연결한다.

지원 대상 가정 지난해 8만5,286가구

지원단이 통합사례관리로 관리중인 대상자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2010년 404가구에 불과했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는 지난해 8만5,286가구로 늘어났다.

올해 지원단의 복지지원 서비스를 받는 가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송영조 사무관은 "희망복지지원단의 맞춤 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며 "상담할 때부터 지원 대상 구분이 없는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이라면 누구든 지원단을 찾아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G

글·김슬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1월 31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3.0' 강조

박근혜 당선인, 부처이기주의 극복 요구… "정책이 민생현장서 효과 내도록 해야"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인수위 분과별 국정과제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국정운영 준비에 나섰다. 경제문제를 토론하면서 정책효과가 현장에 잘 전달돼 서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하라고 인수위원들에게 주문했다. 또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지난 1월 25일 시작한 인수위 분과별 국정과제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국정철학을 연이어 밝혔다. 박 당선인은 첫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인수위 분과별 협조체제와 부처 간 협력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경제1분과 토론회에 앞서 부처이기주의 문제를 거론했다. 박 당선인은 "이제 부처이기주의로는 결코 어떤 일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모든 부처가 내 것, 네 것을 따지지 않고 국민이 바라는 서비스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부처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할 것은 하고 서로 힘을 합할 것은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1분과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은 "이제는 성장과 경제발전이 국민의 삶의 질, 국민의 행복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공무원은)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면 그게 일자리와 어떻게 연관되느냐는 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한국경제 패러다임은 과거 추격형 성장에서 선도형 성장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 "수출중심 성장에서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 경제로 가야 한다. 그동안의 제조업 치중 방식에서 이제는 서비스업 경쟁력도 함께 키워가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 말은 제조업을 경시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더 높일까, 제조업 경쟁력을 더 높일 것인가 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해서 무너진 중산층을 반드시 복원해 내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중산층 복원의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틀을 다시 짠다는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면서 "국민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충분하게 듣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로 무너진 중산층 반드시 복원

1월 27일 열린 경제2분과 토론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이 의제로 떠올랐다. 중소기업을 비롯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각종 경제 제도의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정책과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4대 사회악 척결도 다짐했다. 인수위는 지난 1월 29일 법질서사회안전분과 보고를 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중이다.

1월 30일 정무분과위원회 토론회에서는 총리실의 역할이 의제로 떠올랐다. 총리실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책현안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총리실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총리실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한국은 '위원회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많다"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토론회 발언 요지(1월 29일)

-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범정부 추진 체계 구축
- 검·경 민생·치안·범죄 예방 이외 업무에 편중된 인력 재편
- 경찰인력 2만 명 증원, 경찰 기본급 인상 및 수당 현실화
- 112센터 인력과 장비 충원
- 아동성범죄자 형량 강화, 성범죄자 관리체계 일원화
-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인력과 설비 보강
- 서울경찰청 117학교폭력지원센터 타 지역 확대
- 소방관 근무 여건 개선, 노후장비 교체
-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 초·중·고 헌법교육 강화로 시민의식과 준법의식 함양
- 특별재난구역 농작물 피해보상 방안 마련
- 제도화한 시스템으로 정부의 모든 정보 국민에게 공개
- 환경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지원
-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 및 안정적 정착대책 마련
- 세종시 기반시설 보강

"정보와 지식 공개해 국민과 문제 해결책 찾을 것"

박 당선인은 토론회 사이 '정부 3.0'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 3.0'은 정부가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전달해 '소통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은 '정부 3.0'의 의미를 "제도화된 시스템으로 모든 정보와 지식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정책의 방향과 문제 해결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식에 대한 밑그림도 밝혔다. 김진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2월 25일 취임행사 기조를 '통합과 전진–국민의 삶 속으로'로 정했다며 "국민 대통합으로 모인 국민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새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밝혔다.

취임준비위에 따르면 행사 슬로건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이며, 2월 25일 0시 보신각종 타종으로 취임행사를 시작한다.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새 대통령 취임식 본 행사에는 6만 명의 국민이 참석하도록 할 계획이다.

글·박상주 기자

민원처리 만족도 현장 목소리 들어

중소기업 대표들 제도개선·관행철폐 제안 봇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장방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무분과 위원들이 1월25일 광주지역의 감사원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와 산업단지를 방문했다. 국민과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행보다. 정무분과 위원들은 광주신고센터 방문을 통해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까지 아우른 민원 현황과 접수, 처리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광주지역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솔직한 애로사항도 들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위원들이 지난 1월 25일 광주지역 현장방문 중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 '글로벌광통신'을 찾아 광케이블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위해 만든 곳 중 하나가 감사원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문을 연 광주신고센터를 비롯해 전국 4곳에 지역민원 해결과 민생비리, 토착비리 척결에 위한 민원센터를 운영한다.

광주 북구 오룡동의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에 위치한 광주신고센터에 지난 1월 25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박효종 간사와 인수위원, 전문위원 등이 방문했다. 국민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역할을 하는 이곳의 민원 접수와 처리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정무분과 위원들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마침 전남 담양군에 사는 이우영(66) 씨가 담양호 수몰지구 보상가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신광식 감사관과 상담하던 중이었다.

이씨는 "담양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해 수몰지구에 포함된 농지 보상가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1986년부터 무단점유지에 지었던 주택보상금도 중간에 신축했다는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일괄적으로 주택보상금의 60퍼센트를 무단점유지 사용료로 떼어간 것은 억울하다"며 "우리 동네에 나와 비슷한 사정을 가진 주민이 여럿"이라고 호소했다.

광주센터, 지난해 민원 1,272건중 550건 직접조사

박효종 간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 신광식 감사관에게 이러한 민원처리에 얼마 정도 걸리는지 물었다. 신감사관은 "15일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 박 간사는 민원인 이씨 등에게 광주신고센터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센터 근무자들에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국민 민원과 직접 맞닿는 곳에 있는 여러분께서 국민 불편을 없애도록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 간사를 비롯해 정무분과 위원들은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 회의실에서 이길후 광주신고센터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무분과 위원들은 민원 접수 현장의 애로·건의사항과 함께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 정부와 감사원 민원센터에서 개선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길후 센터장은 "11명이 근무하는 광주센터는 2012년 1,272건의 접수민원 중 550건을 직접 조사해 2008년 12퍼센트에 불과하던 감사원의 민원직접조사 비율을 광주센터 개설 이후 매년 40퍼센트 이상으로 높였다"면서 "많은 민원인이 감사원 직접 조사를 신뢰하고 또 원한다"고 전했다.

박 간사는 "박 당선인은 제도 개선은 물론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민원 해결을 넘어 관행 개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정무분과 위원들은 광주 북구 대촌동의 한국산업관리공단 호남권본부 회의실에서 광주지역 중소기업인 10명과 중소기업 규제개혁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 중소기업인들 솔직한 고충 토로

박효종 간사는 "광주는 자동차 생산, 광산업 등 산업의 발전역량과 가능성을 가진 도시"라며 "여러분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열심히 경청해 박 당선인에게 잘 전달하겠으니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는 인사말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대표들은 구인난, 지원제도의 효율성 제고 등 각종 제도 개선, 관행 철폐를 위한 제안을 내놓았다. 정무분과 위원들은 간담회 내내 이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들 중소기업인은 금형·자동차·광통신 등 제조업 대표들이었다.

이어 정무분과 위원들은 이날 마지막 행선지로 대촌동의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 '글로벌광통신'을 방문했다. 광통신과 광응용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인 글로벌광통신의 김준형 연구소장은 1층 전시실을 둘러본 정무분과 위원들에게 "우리가 개발한 비파괴 당도측정기와 관련해 형식승인 기준이 없어 인증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충을 전했다. 또 이 회사의 김건배 사업본부장은 "몇 년 전 경기도 파주에 대기업의 LCD 디스플레이 공장이 생기자 우리 공장의 인력 40퍼센트가 빠져나가더라"며 중소기업의 인력유출 현실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루 동안 2차례의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며 바쁜 일정을 마친 정무분과 위원들은 다시 서울로 향했다. 돌아가는 일행의 손에는 묵직한 서류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G

글· 박경아 기자

박효종 정무분과 간사

"어떻게 가시를 뽑아야 하는지 모색"

감사원 광주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와 산업단지 등을 현장방문지로 택한 이유는?

"광주신고센터는 국민의 손톱 밑 가시를 빼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설한 곳입니다.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는 과연 중소기업인의 손톱 밑에 어떤 가시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그 가시가 무엇인지, 어떻게 가시를 뽑아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격이 다른 두 곳을 찾은 것입니다."

광주신고센터를 직접 둘러본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광주신고센터의 방문 목적은 국민의 민원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고 센터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보고 듣기 위한 목적입니다. 직접 와보니 현장에서 민원인들의 요구를 충실히 처리하고자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민원 처리가 국민 만족도로 직결되는지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손톱 밑 가시로 부각된 것이 '관행'인데요.

"광주센터에서 관행, 인식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 민원을 한 건 한 건 해결하는 단계를 넘어서 대안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관행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중소기업간담회에서도 기업인들이 경험하는 불합리한 관행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자 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불편을 야기해온 관행 개선은 제도 개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는 어떤 말씀이 오갔는지요?

"중소기업인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한 자리였는데 절실하게 들렸습니다. 큰 주제도 있었고, 작지만 당면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솔직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중소기업이 인력을 키워 쓸 만해지면 대기업에 빼앗긴다는 말이었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 접수한 애로와 건의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국민과 기업활동에 제약을 주는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정무분과에서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부분은 경제분과로 넘겨줄 것입니다. 하루에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빡빡한 일정을 잡았지만,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보고 듣는 데 하루 종일 집중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정무분과의 업무를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

"대부분의 다른 분과에서는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일정을 잡았지만, 정무분과는 자체적으로 점검할 공약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감사원·국가정보원 등이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능 조정과 인수인계를 담당합니다."

토론 열기가 후끈후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가 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3644 꿈틀 열린 간담회'에서 조별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꽃봉오리 피게 돕는 것이 정부 역할"

150여 명 참가 '일자리와 소통' 주제로 폭포수같은 외침 쏟아내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고, 일자리가 없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청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진솔한 발표와 '시간연장'을 외친 조별토론, 후끈한 토론 열기를 식히기 위한 뒤풀이 맥주 한 잔 자리까지, 청년들의 외침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학생단체, 2030직장인 등 청년 150여 명을 초청해 '3644 꿈틀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다.

'3644'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집 36~44쪽의 청년공약을 의미한다. '3644 꿈틀'은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이 꿈틀대며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만들겠다는 청년특위의 별칭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청년특위 이종식 위원은 "오늘의 주인공은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2030 청년세대 여러분"이라며 '멍석'을 깔았다. 간담회에는 당초 전·현직 대학 총학생회장, 비정부기구(NGO) 대표, 2030 직장인과 취업준비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년특위에 적극적으로 참가 의사를 밝힌 '민원' 요청까지 모두 받아들여 참석 규모가 150명으로 늘어 판이 예상보다 커졌다.

박칼린 청년특위 위원은 "2030세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와 주제들이 있으나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담아낼 수 없기에 2030을 가장 크게 아우르는 문제들인 '일자리와 소통'을 주제로 잡았다"고 주제를 설명했다.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발표에서 조건희 군산대 총학생회장은 "지역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심한 지역 격차와 미스 매칭"이라며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다른 지역에는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의 눈은 높은데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취업준비생 최지나 씨는 직장 면접장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관행을 지적했다. 고교 시절 정치외교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미국 유학을 다녀온 최씨는 "곧 29세가 되는데 아직도 직장이 없어 창피하다"며 "인턴 면접에 가면 내 이야기보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고 물어 당황했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 위해 청년의 창의성에 물어야"

'청년과 소통하는 정부'라는 주제발표에서 김성용 공주대 전 총학생회장은 "청년특위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 청년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심에 따라 움직인다"고 충고했다.

강석하 고려대 연구원은 "새로운 세상을 맞아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달라"며 "기존의 틀로 풀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의 창의성에 묻고, 다양한 세대의 장점을 함께 연소시킬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우정 한국대학생재능포럼 총괄본부장은 "최근 소통이 키워드가 되며 나타나는 현상이 소통을 가장한 불통"이라며 "정부의 청년과 소통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청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에 참여하게 하거나 청년들의 목소리 전달 통로가 필요하다. 2030을 '위한'도 좋지만 '의한(by)'이 되어야 한다"고 청년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주제발표가 끝날 때마다 이어진 조별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체육학과 학생들은 취업지원서도 못 넣는다. 스포츠는 각광받지만 스포츠인은 여기서 예외다." "취업도 두렵지만 창업은 더 두렵다" "창업에서 패자부활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돼서 청년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대학을 안 나와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뜨거운 조별토론이 이어진 뒤 모인 많은 의견이 발표되면서 한 참석자의 외침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청년은 꽃봉오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미나 백합만 되려고 합니다. 내가 피어나고자 하는 꽃봉오리, 그 꽃봉오리로 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청년특위는 폭포수 같이 쏟아진 청년들의 목소리를 인수위가 운영되는 동안 계속 듣기로 하고 청년들의 모든 제안을 이메일로 접수받기로 했다.

글·박경아 기자

청년특별위원회 청년의견 접수 21ckjhh@naver.com

김상민 청년특별위원장

"지역·연령·계층별 소통 창구 필요"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였는데, 참석자들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진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다가가려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보았으니 알겠지만, 청년특위가 행사 진행 방식을 제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토론하고 경청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해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직접 조별토론에도 참석하셨는데, 참석자들 사이에서 간담회를 지켜본 소감은?

"청년들의 현실문제 해결 욕구가 얼마나 간절한지, 해결을 위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시간을 연장해야 할 정도로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뜨거운 반응을 보며 이러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기구에 대한 요구가 큰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위원회가 구성돼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인수위 청년특별위원회가 청년들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며,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청년의 불통에 대한 지적도 나오더군요.

"그동안 정부가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의견수렴만 있고 이후 수렴된 의견들이 어떻게 진행되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시작만 있고 과정과 결과가 없으니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하는 데 동의합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바라는 소통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참석자들은 찾아가는 소통, 넓고도 깊은 소통을 희망했습니다. 지역·연령·계층별로 세분화한 소통 창구가 필요한 듯싶습니다. 특히 위아래 세대에 끼어 소통에서 소외된 30대를 위한 소통의 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청년특위는 청년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인지요?

"소통이란 그저 이야기를 잘 듣는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듣고, 그 결과를 내기 위한 진정성 있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결과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결코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수렴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소통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이메일을 보낸 당사자들에게 모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적 안정감 낮다" 실무자 고충 청취

"예방예산 수치화 어렵다" "가해자 인권 중시 안타깝다" 의견도

최근 여성·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빈발하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 위원들이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여성·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방문했다. 지난 1월 29일 이들이 찾은 곳은 서울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등이다.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9길에 위치한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2층 육아정보나눔터에는 '은빛아이지킴이'들이 있다. 주중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60세 이상 여성 어르신들로 구성된 은빛아이지킴이들은 1 대 1로 영·유아들을 돌본다. 지난 1월 29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 위원들이 이곳을 직접 찾았다.

모철민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간사는 먼저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김예리 센터장으로부터 은빛아이지킴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최서현(13개월) 아기를 돌보는 은빛아이지킴이 김미숙(69) 씨 등에게 영·유아 엄마들이 어떻게 이곳을 이용하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2010년부터 은빛아이지킴이로 활동한다는 김씨는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엄마들이 아이들을 이곳에 맡기기도 한다"며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다시 일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모철민 간사는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사용하는 3층 건물 곳곳을 둘러보기에 앞서 김 센터장 등으로부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다문화 지원 '역차별' 없게 중복사업 지양"

김 센터장은 "결혼·출산기피, 이혼율 상승, 돌봄 기능의 약화 등으로 우리 가정이 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가족관계가 친밀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정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위원들이 지난 1월 29일 서울 동작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해 은빛아이지킴이 어르신들과 영·유아 돌보기를 화제로 대화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장기근속자의 임금인상이 어려워 근무자들이 직업적 안정감을 갖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비·시비 등에서 지원받는 운영비 가운데 인건비가 70퍼센트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또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한데, 예산지원부서에서 명확한 사업내역을 기술해주기를 원하지만 예방을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진경 사무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이 '역차별'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는 만큼 그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중복사업을 지양한다"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금 중 사업비가 5퍼센트에 불과하다 보니 외부 후원에 의존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많다. 대신 우리 직원들은 주말에도 수당 없이 근무한다"고 어려움을 말했다.

동작구에서 현장방문을 마친 여성문화분과 위원들은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운영 중인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방문했다.

2011년 2월 문을 연 서울해바라기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여성과 아동(남자는 만 19세 미만)에게 의료와 수사 지원, 상담과 심리치료를 하는 곳이다.

이곳에는 초기 면접부터 산부인과 의사의 평가 및 치료, 진술녹화와 진술조서 작성,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등 7단계의 피해자 지원 과정이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 수사 등에 필요한 증거물 채취용 성폭력 응급 키트도 사용한다.

"가해자 발생도 막는 종합적인 대책 필요"

서울해바라기센터 정희원 센터장(서울대병원장)은 여성문화분과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운영 현황을 설명한 뒤 "갈수록 증가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은 정말 심각하다. 지난 2년간 부족한 예산과 인력, 협소한 공간에도 연중무휴로 상담지원체계를 유지하는 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면 더 많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빨리 치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성폭력, 특히 아동 대상 성폭력은 일반인들이 애써 피하려는 부분이다. 신문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제약이 있다"면서 "오늘 여러분의 방문을 계기로 이런 피해자들, 폭력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최소화되고 빨리 치유되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G

글·박경아 기자

모철민 여성문화분과 간사

"모범적인 지원센터 늘려 본보기 삼아야"

현장방문 대상으로 여성과 다문화가정, 성폭력 관련 기관들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문화분과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성과 다문화가정, 성폭력 관련 기관을 현장방문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그만큼 급변하는 시대에 가정과 다문화,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화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문화는 서구 여러 나라가 겪어온 문제이며,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가는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성폭력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해 보입니다.

"여러 언론에 성폭력 관련 기사를 보면 짐작하듯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성폭력은 지난 2007~11년 54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동 대상 성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성폭력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장을 둘러보신 소감은 어떠하신지요?

"현장방문을 통해 여러 시설과 운영 현황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둘러본 곳은 그나마 잘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복지 시스템이 그렇듯 현장에서 일하는 여건은 생각보다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소명의식에만 의지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이 새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요?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예산도 크게 늘릴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복지 시스템, 말단에서 작동하는 조직과 시설, 인력에 관한 부분도 좀 더 개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복지 지원 물량도 늘려야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개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방문한 곳들은 비교적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센터들을 전국으로 늘려나갈 때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현장방문에서 복지 기능을 한데 모은 일종의 '통합센터'에 관한 제안도 나왔는데요?

"정부 부처에서는 여성과 가정, 복지 등으로 업무가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과 접점에 있는 이들 시설은 시·군·구 자치단체장이나 읍·면·동장 소관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이 집행되고 주민들과 접점이 되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여성·가정·복지, 나아가 아동·청소년 시설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필요성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간 활용이나 인력 운영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위원들이 지난 1월 30일 서울 노원구의 북부고용센터를 둘러보며 상담창구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구직자 일터 만드는 희망의 온상"

고용지원 현장 직원 애로사항, 서비스 이용자들 고충에 귀 기울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위원들은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서울 북부고용센터와 노원지역자활센터를 현장방문 대상으로 선택했다. 고용센터가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취업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올 포 원'의 처방이라면, 지역자활센터는 취약계층이 일과 복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투 포 원'의 해결 방안이다.

구직자들에게 취업은 바로 희망이다. 그런 구직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위한 서비스와 정보, 훈련을 제공하는 곳이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의 고용센터들이다.

지난 1월 30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에 위치한 서울북부고용센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위원들이 방문해 1층 실업급여 교육장부터 한 층 한 층 올라가며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서울 강북·노원·도봉·성북·중랑구를 관할하는 북부고용센터는 서울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을 서비스 대상으로 해 서인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지난 1월 이곳을 방문한 사람은 지난해의 1만5,000명보다 30퍼센트 정도 줄어든 1만1,000명 정도입니다. 반면 실업급여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500명보다 늘어 5,900명가량입니다." 북부고용센터 김숙경 기업지원2과장은 최성재 간사를 비롯한 고용복지분과 위원들에게 "실업급여제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자격이 안돼 헛걸음하는 사람은 줄고, 실업급여를 받을 만한 사람만 방문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일이란 가족과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

고용복지분과 위원들은 이어 3층의 실업자재취업지원상담창구, 5층의 내일배움카드발급상담창구, 6층의 취업성공패키지상담창구를 거쳐 8층 간담회장에 도착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복지분과 위원들과 함께 이도영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 서호원 북부고용센터 소장 등 센터 직원과 실업급여 수급자도 참석했다.

최성재 간사는 인사말에서 "일이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며 가족을 행복하게, 결국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중산층 비중을 70퍼센트로 늘리고 고용률을 70퍼센트로 올리고자 '7070 국민행복'이라는 국정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한다. 여러분의 어려운 점, 개선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

자활기업 '사랑의 손맛'서 위생관리 등 살펴

이어 한 시간 가까이 고용센터 현장의 애로사항, 고용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등에 대한 솔직한 발언을 들은 고용복지분과 위원들은 인근에 위치한 노원지역자활센터를 찾았다.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노동이 가능한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지원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운영기관을 지정한다.

노원지역자활센터는 1996년 대한성공회에서 운영했던 '나눔의 집'을 모체로 출발했다. 현재 자전거사업단·봉제사업단·양곡배송사업단 등 10개의 자활근로사업(102명 참여)과 도시락 제조·배달업체인 '사랑의 손맛', 친환경반찬제조업체인 '장독또기' 등 6개의 자활기업(37명)이 운영되고 있다.

고용복지분과 위원들은 오상운(대한성공회 신부) 노원지역자활센터장 등 센터 관계자와 이용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과 각종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이어 위원들은 노원지역자활센터 옆 건물 2층에 위치한 자활기업 '사랑의 손맛'을 찾았다. 2001년 노원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으로 출발한 '사랑의 손맛'은 지난 2008년 SK그룹과 협력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최성재 간사는 '사랑의 손맛' 백미선 센터장에게 도시락 포장재와 위생관리, 하루 배달하는 도시락 수 등을 꼼꼼하게 물었다. 고용복지분과 위원들은 낡고 좁은 2층 건물을 구립 노인정과 함께 사용하는 노원지역자활센터를 떠나며 공식 격려금과 함께 즉석에서 만든 봉투 하나를 오상운 센터장에게 전달했다. 위원들의 점심값과 교통비 2만원씩을 모은 '따뜻한 봉투'였다. G

글·박경아 기자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

"고용과 복지, 국민 눈높이 맞는 서비스로"

서울북부고용센터와 노원지역자활센터를 연계방문한 이유는?

"전국에 고용센터가 많지만 북부고용센터는 서울 북부 5개 구를 관할하면서 가장 많은 인구를 서비스 대상으로 합니다. 종류별로 볼 때 모든 고용센터의 서비스를 여기서 다 제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활사업을 시작한 지 가장 오래된 지역의 하나인 노원지역자활센터 역시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직접 둘러보니 어떠하셨습니까?

"현장에 직접 와 보니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생이 많은 듯합니다. 과도한 업무량, 낙후한 시설 등 여러 가지로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시설이 열악하거나 접근이 불편한 시설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통합된다면 기존의 인력과 시설로도 좀 더 나은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할 부처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각기 다른 시설을 함께 살펴본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강조하듯 고용과 복지는 별개가 아닙니다. 고용과 복지는 같이 가야 합니다. 복지가 이제는 낭비가 아니고 소비도 아닙니다. 복지가 바로 생산으로 연결되고 일로 연결돼 일을 통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인 일과 복지를 연계하는 국정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분과 위원 모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하나 꼽으신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야 하는데 운동화 속에 돌멩이가 있다면 앞으로 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일을 찾아 수급자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운동화 속 돌멩이는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그때까지 주어지던 모든 혜택이 일시에 박탈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도 수급자에서 벗어나도 지원이 점진적으로 중단되도록 공약했고, 이에 맞춰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께서 복지정책 전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깔때기 현상'을 없애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어떤 정책이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중복을 지양하고, 현장근무자들이 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급자들에게 혜택이 고르고 바르게 잘 전달된다고 봅니다.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한 애로사항과 개선점 등을 잘 반영해 중복된 서비스는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사각지대는 없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용과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획특집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설

숨가쁘게 산다. 현대인들의 초상이다. 글로벌 시대와 함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삶에 여유가 없다 보니 가족과 친지도 조금씩 멀어진다. 이런 한국인들에게 민족의 대명절 설은 진정한 오아시스다.
고향을 오가는 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유로운 마음이다. 모처럼 만나는 가족의 이야기도 먼저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수다. 주방에서 일하는 아내를 외면하는 남편의 자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설에는 온 가족이 몸과 마음을 합해 함께 일하고 같이 쉬어야 진정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다.

情이라는 엔진으로 설설 가도 좋은 설

'명절증후군' 앓아도 '새해 소망' 전통은 변함 없어

매일이 설날만 같아라. 다들 들뜬 마음으로 설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설날 날이 밝으면 설빔을 입고 아침 일찍 집안 어르신께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주고받았다. 할아버지가 건네주는 세뱃돈은 아이들이 가장 고대하는 명절 풍속이기도 하다. 오랜 동안 민족과 함께하며 우리의 얼을 지켜온 설은 민족의 으뜸 명절로 사랑받고 있다.

2013년 설날은 2월 10일, 일요일이다. 비록 설 연휴는 예년에 비해 짧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민족 대이동 현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예상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기간 이동 인구는 2,900만여 명에 달한다.

설날의 기원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역사서에 신라 사람들이 신년에 함께 모여 잔치를 벌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고려사〉에는 설이 구대속절(九大俗節) 중 하나로 기록돼 있다. 조선시대에는 한식·단오·한가위와 함께 4대 명절로 꼽았다.

설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해를 탈없이 보내기 바란다는 뜻의 '삼간다',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이 서럽다는 '섧다', 새로운 한 해가 익숙하지 않다는 '낯설다', 한 해를 새로 세운다는 '서다' 등 여럿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설날의 틀은 조선 중기를 거치며 형성됐다. 조선 후기 저술인 〈경도잡기〉와 〈열양세시기〉에는 설날 세시풍속이 자세히 묘사돼 있다. 설날에는 남녀가 모두 새 옷을 입는데 이를 '세장'이라고 했다. 친척 어른들을 찾아가 절을 올리는 것을 '세배', 시절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을 '세찬'이라고 했다. 멥쌀로 떡을 쳐 길게 늘여 가래떡을 만들었다. 이를 엽전 굵기로 잘라 넣고 끓인 떡국은 가장 보편적인 세찬이었다.

〈동국세시기〉에는 궁중의 설 행사에 대한 기록이 있다. 궁중에서는 설이 되면 모든 대신이 대궐로 들어가 임금께 문안을 드리고 새해를 축하하는 전문(箋文)을 올렸다는 것이다. 전문은 '나라의 길흉이 있을 때 신하가 왕에게 올리는 글'을 말한다.

중앙포토

설은 가족이 함께 즐기는 민족의 대명절이다. 이번 설을 앞두고 대전 대현동 대전평생학습관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설맞이 예절교육 행사가 열렸다.

민족문화 말살 의도 일제 설 명절 훼손

설은 일제강점기 들어 수난을 당하기 시작한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가 설에 담겨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양력제 도입을 빌미로 설 명절을 말살하려고 한다. 새해 첫날은 설이 아니라 양력 1월 1일이라고 홍보에 나섰다. 설이면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어 차례를 방해했고, 일부러 민속놀이가 벌어지는 장소를 찾아가 다양한 방법으로 훼방을 놓고는 했다.

광복 후에도 오랫동안 설은 살아나지 않았다. 정부가 산업화에 주력하며 효율성을 강조하던 시기여서 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양력 1월 1일 신정을 쇠고 또 설을 쇨 여유가 없다는 논리였다. 신정과 설을 두 번 쇠는 이른바 '이중과세'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철저한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설은 민족의 문화 속에서 그 뿌리를 면면히 이어왔다. 누가 금한다고 잊혀질 명절이 아니었다. 1960년대 설 사진을 살펴보면 사람들로 가득 차 터질 것 같은 귀성열차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열차 칸에 끼어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당시 신문기사에는 나일론 양말과 양과자가 최고 인기 선물이었다.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한국사회에 핵가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조부모를 모시고 살던 한국의 가족문화에 일대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조부모와 따로 살다 보니 명절날 온 가족이 집을 나서는 대이동 현상이 보편화하기 시작했다.

차례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사과·배 같은 전통 과일 대신 파인애플·바나나 같은 새로운 과일이 차례상에 올랐다. 부모님이 즐기던 소시지를 젯상에 올리는 것이 효인가 불효인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도 이 즈음이다. 세상은 그렇게 변해도 설날 고향을 찾는 행렬은 좀처럼 줄어들 줄 몰랐다.

1985년, 설은 '민속의 날'이라는 어정쩡한 이름으로 우리 앞에 돌아왔다. 단 하루뿐인 공휴일이었지만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늘어만 갔다. 설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여론마저 높아지자 정부는 마침내 1989년 2월, 설을 전후한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60년 만에 민족의 대명절이 온전하게 복원된 것이다.

설이 공식적인 명절로 지정되면서 고향을 찾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 전 국토가 설만 되면 귀성·귀경 행렬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15시간이 걸렸다.

연합

1978년 1월 27일 설날 귀성열차 예매를 위해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핵가족화로 '민족 대이동' '역귀성' 현상

1990년대 중반부터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역귀성 차량도 크게 늘었다. 1996년 도로공사 집계 자료를 보면 설기간 경부고속도로 이용차량의 37%가 서울로 향하는 차량이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설문화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속의 날에서 설로 다시 돌아왔을 당시에 비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집을 비우고 나왔다. 하지만 이들의 목적지는 조금씩 고향과 다른 길로 향했고, 오히려 가족으로부터 멀어졌다. 인천공항은 명절때마다 인파로 북적인다. 설이 지나면 이혼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지칭하는 '명절증후군'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핵가족화를 넘어 가족 전체보다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를 더 중시하는 탈가족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다.

여전히 가족이 함께 명절을 보내는 문화는 남아 있다. 하지만 요즘은 부모와 자식 2대가 사는 핵가족 형태가 일반적이다. 세배를 다니는 대신 문자나 이메일로 새해 인사를 대신하는 풍조도 일반화했다. 윷놀이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세상이 됐다. 문화가 바뀌고 가족관에도 변화가 생겼다.

변화가 빠른 한국이다. 설에 아이들이 어른들께 절하고 세뱃돈을 받던 흐뭇한 풍경도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하지만 어떤 변화가 와도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이다. 나아가 이웃을 돌아보고 한 해를 바르게 살겠다고 소망하는 일. 이것이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설의 참 정신이자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 설의 미덕이다. G

글·조용탁 기자

중소기업에 특별자금 16조 푼다

35개 품목 특별 물가관리… 제수용품·상품권 등 5개 분야엔 소비자피해 주의보

누구에게나 명절은 즐거워야 하지만 명절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하는 서민들도 있다. 이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물가를 잡는 일부터 악덕상인을 적발하고 귀성길을 챙기는 일까지 할 일이 많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명절도 잊고 수고하는 각 부처의 노력을 소개한다.

"고등어 한 마리에 800원 맞나요?"

주부 김수진(가명) 씨는 생선코너에서 가격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명태·오징어·고등어·조기 등 자주 찾던 생선 가격이 평소의 절반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을 시중가격의 50퍼센트 수준에 내놓은 덕분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정부 비축 수산물 4,306톤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명태 2,500톤, 오징어 724톤, 고등어 709톤, 조기 217톤, 갈치 156톤이다. 이들 수산물은 중간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점, 농협하나로마트 및 수협바다마트에서 판매된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35개 품목을 특별관리하며 본격적인 물가관리에 나섰다. 특별공급기간에는 앞서 소개한 수산물을 포함해 모두 16개 농·축·수산물 공급을 평소보다 1.5배 확대한다. 특히 한파의 영향이 큰 겨울채소인 배추는 800톤을 할인해 공급하고, 떡쌀용 정부쌀 21만1,000톤도 1월 24일 조기 방출했다.

온라인 거래부터 전통시장 저울까지 점검 나서

거래가 증가하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도 활발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들며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제수용품을 주문했는데 하자 있는 제품을 받는 경우, 명절이 지난 다음 물품이 도착하는 사례, 파손된 제품이 왔을 때 대처방법 등을 알려준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사례를 접수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용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전통시장을 찾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여럿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합동으로 저울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경부 기표원은 점검기간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정육점·식품점·청과물점·수산시장·대형유통업소·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정확도, 눈금 변조 여부, 검정기관의 검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 위반업소와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모처럼 온 가족이 모였는데 음식을 먹다 탈이 나도 큰일이다. 새해 첫날부터 누워 있다 보면 몸도 마음도 피곤해진다. 불상사를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점검에 나섰다. 주요 검사품목은 건강기능식품·다류·식용유지류·한과류·떡류 등 제수용품이다.

식약청은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을 깐깐하게 점검했다. 특히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과일 및 나물류(깐도라지 등)는 집중수거해 잔류농약 및 허용 외 첨가물 사용 여부를 검사했다. 아울러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고사리·도라지 등 농·임산물 등의 검사를 설 기간 내내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청 강용모 식품관리과장은 "식약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것을 기대한다. 관련 업체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등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의 안전한 귀성과 귀경을 위해서는 소방방재청도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소방방재청은 2월 5일까지 소방특별조사반을 운영한다.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이다.

정부가 설을 맞아 비축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나섰다. 주부들이 서울의 한 할인마트에서 정부 비축 수산물을 고르고 있다.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면 전국 17곳의 소방본부와 191곳의 소방서가 특별경계근무를 시작한다. 안전한 귀성과 귀경을 위해 소방방재청은 헬기를 동원해 특별순찰에 나선다. 주요 순찰지역은 전국 주요 고속도로 가운데 교통량 증가지역, 병목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구간이다.

문자 서비스로 생활정보 안내도

연휴기간 문자 서비스를 통해 급변하는 기후 상황과 응급조치가 가능한 병원·약국·보험회사 등의 전화번호 등 생활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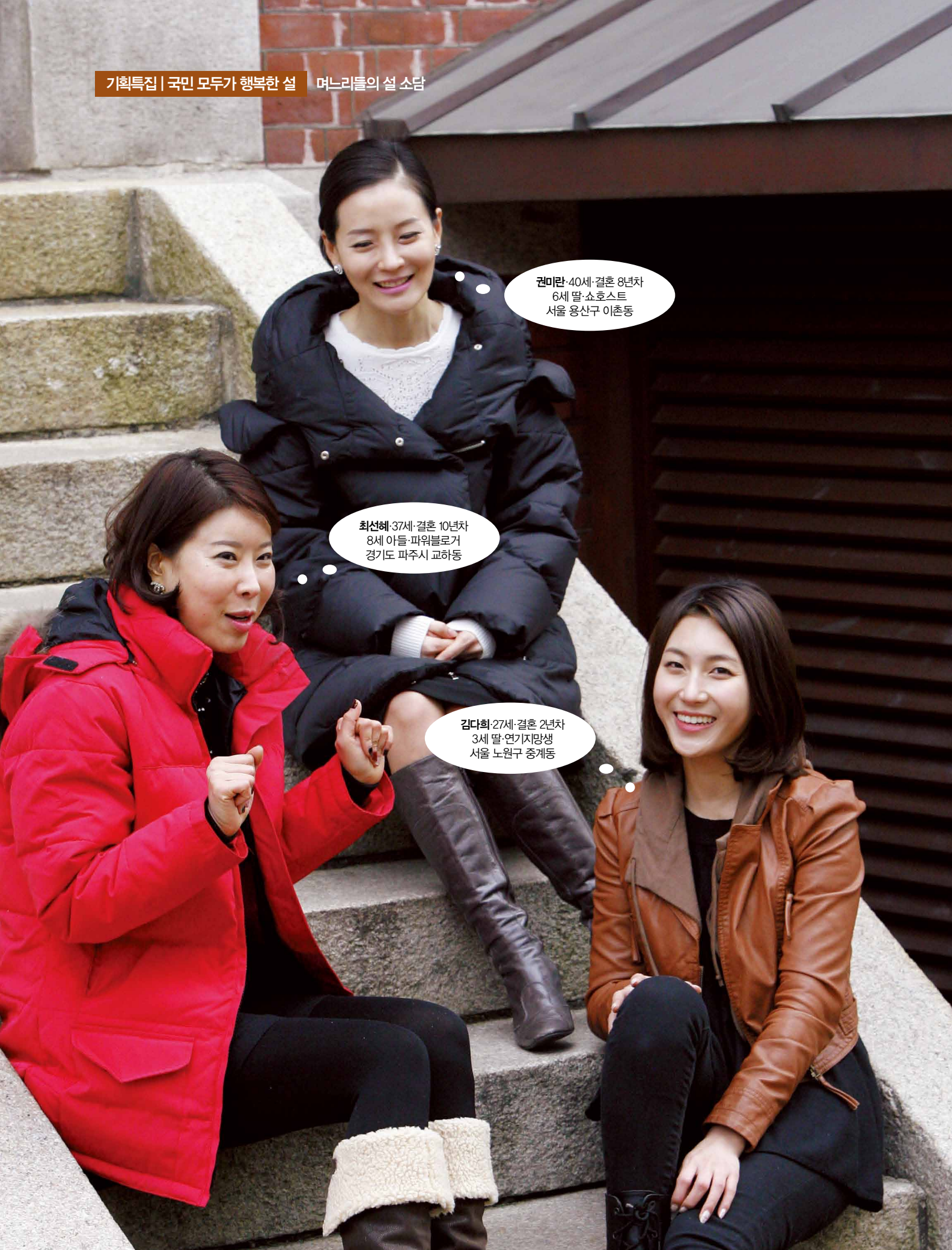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족이 무사히 부모님 집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뭔가 아쉬울 때가 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데 명절 분위기가 날 리가 없다.

회사에서 떡값이라도 받아야 비로소 명절 분위기가 살아나게 마련이다.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 등에 16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 배경이다.

자금 사정이 빡빡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이 4조3,000억원, 민간 시중은행이 10조9,000억원을 푼다. 여기에 중소기업청이 재정자금으로 5,000억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6,8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올해 설 명절 특별자금규모는 지난해보다 3조3,000억원가량 늘었다. 중소기업 등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도 1월 31일까지 지급됐다.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집중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도 유도한다. 소외계층과 나눔을 확산하고자 전국 6만1,773개 경로당에 3월까지 월 3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한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에도 난방유와 연탄 쿠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설 전까지 총 221억원 규모의 시설복구비를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G

글·조용탁 기자

권미란·40세·결혼 8년차
6세 딸·쇼호스트
서울 용산구 이촌동

최선혜·37세·결혼 10년차
8세 아들·파워블로거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김다희·27세·결혼 2년차
3세 딸·연기지망생
서울 노원구 중계동

지미연 기자

“시월드? 긍정을 터득하는 세계죠”

명절 스트레스 지혜로운 대처법… “성장통 같은 것, 시간 지나면 해소”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시월드’라는 말이 화제다. 시월드란 시어머니·시아버지·시누이처럼 ‘시(媤)’ 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의 세상, 즉 시댁을 말하는 신조어다. 며느리들은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치러야 하는 시월드 증후군에 몸살을 앓기도 하고 깐깐한 시월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골머리를 앓기도 한다. 20, 30, 40대를 대표하는 며느리들이 모여 명절을 앞두고 이야기 꽃을 피웠다. 세 명의 며느리가 말하는 ‘시월드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시월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명절을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권미란 “저는 TV홈쇼핑에서 쇼호스트로 일합니다. 명절에 특집방송이 많이 잡혀 남들이 쉴 때 일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명절에 참석할 수 없는 며느리지요. 어떻게 보면 최고일 수 있지만, 친정에도 갈 수 없어 아쉬워요. 그래도 요즘은 휴가를 내거나 방송시간을 조정해 되도록 가족을 만나려고 해요. 다행히 시댁은 신정을, 친정은 설을 쇠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어요. 설에는 친정 식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만큼 신정에는 시댁에서 최선을 다하죠.”

최선혜 “시댁이 광주광역시예요. 열차표 끊기가 힘들어 차를 몰고 내려가는데 보통 10시간 넘게 걸리죠. 내려가는 것부터 힘들어서 음식 장만하는 것을 돕지는 못해요. 나이 차가 많은 형님들이 부엌일을 하고, 저는 주로 시어른들 앞에서 수다나 애교 떠는 역할을 하죠. 남편이 6남매 중 막내여서 귀엽게 봐주는 것인지 이해해줘요. 결혼해서 1~2년은 시댁에서 보내는 명절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적응이 됐어요. 새벽 5시에 올리던 차례를 제가 시집에 들어간 뒤부터 시아버지의 배려로 새벽 1시에 올려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어요.”

김다희 “남편이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예요. 시아버지는 그 팀의 감독이고, 도련님도 사이클 선수지요. 운동선수 집안이어서 명절 때도 훈련이 잦아 시어머니와 단 둘이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다행히 결혼하기 전에 시집에서 제사를 없앴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혼자서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겠다고 선포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결혼 초기이고 분가한 지 얼마 안돼 명절 여부와 상관없이 시댁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명절에도 차례를 지내지 않는 대신 모두 모여 맛있는 음식을 해먹죠.”

“모두 무난한 경우여서 명절 스트레스는 크게 없을 듯 한데요?”

권미란 “그럴리가요. 시어머니께선 종갓집 며느리여서 음식을 해도 한 바구니씩 하는 스타일이죠. 일흔을 넘기시고부터는 힘드시니까 설은 큰아들집, 추석은 작은아들집에서 음식 해먹는 걸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며느리들이 하는 게 성에 안차셨는지 올해부터는 다시 시어머니집에서 각자 음식 해와서 먹는 것으로 바꿨답니다.”

최선혜 “시댁에서 명절 마치고 서울에 있는 친정에도 가고 싶은데 시아버지께서 꼭 시누이들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서운해 펑펑 울다 ‘저도 친정에 가고 싶어요. 특별한 날 아니면 못보니까요’라고 말씀드렸죠. 신랑한테도 ‘이런 식이면 다시는 못 온다’고 엄포를 놨어요. 신랑이 대변해주고 시아버지께서도 이해해주셔서 이제는 ‘얼른 준비해 가라’고 하세요.”

김다희 “저도 비슷해요. 연휴가 4~5일 있으면 오랜만에 친정에도 가서 수다 떨고 싶은데 아예 그런 생각을 안해주시더군요. 시댁 스케줄 대로만 움직여야 했죠. 아직도 신혼이라 말은 잘 못 꺼내는데 이대로 굳어질까봐 두려워요.”

권미란 “굳어질 거예요. 신랑을 가르쳐야 해요!”(웃음)

“명절증후군을 푸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요?”

권미란 “명절에 내가 힘들어하면 남편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40대 권미란
“이번 설에는 시댁과 친정 모두 찾아 뵙고 말동무가 되어드릴 거예요”

일을 참지 못하느냐고 하죠. 나보다 네 살 위인데, 그럴 때면 남편이 조금 고지식하고 답답해 보여요. 그럴 때면 친정엄마나 결혼하지 않은 친구와 훌쩍 바람을 쐬러 가요. 남편은 딸을 데리고 같이 가자고 하지만 그러면 안풀려요.”

최선혜 “시집와서 초반에는 말도 못하고 혼자 많이 울었어요. 이제는 시댁에서 불평거리가 생기면 바로 말하죠. 평생 가야 하는 관계라면 마음 속에 담아둘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빨리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명절상을 치우고 둘러앉아 술을 한 잔씩 할 때 핑계삼아 털어놓고 말하죠. 시부모님과 시누이들도 그런 마음을 이해해주고 오히려 챙겨주는 편이에요. ‘그냥 너희가 이혼하지 않고 잘살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다독여주기도 하죠. 육체적 피로는 시댁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온천에 들러 온천욕이나 찜질로 풀지요.”

김다희 “명절을 마치고 시간 여유가 날 때 남편과 데이트를 해요. 아니면 ‘싱글’인 친구들과 즐겁게 놀거나. 이도 저도 안 되면 혼자 영화를 보러 가죠.”

“시월드에 입성해 최대 위기가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또 그 위기는 어떻게 극복했나요?”

권미란 “요즘 흔히 말하는 ‘동서 스트레스’가 조금 있어요. 승무원 출신의 형님은 상냥하고 음식도 잘하고 시어머니께 참 잘해요. 시어머니는 형님과 나를 비교하며 ‘왜 너는 방송에서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기서는 힘들고 아프다고만 하니?’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워낙 방송에서 웃으면서 말을 많이 해서 평소에는 못하겠어요. 많이 배울게요’라고 위기를 넘겼죠. 요즘은 그런 나를 시어머니가 포기한 눈치예요.”(웃음)

최선혜 “시집와 보니 시어머니가 광주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시더군요. 명절 때도 영업을 했는데, 문 연 집이 드물어 평소보다 손님이 더 많았어요. 그 설거지를 혼자 도맡아 했죠. 찬물 알러지가 있어 피부가 울긋불긋해지고 화장실이 야외에 있어 볼일을 못 보는 등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한때 사업하는 남편과 갈등이 심해 양가 가족을 다 보지 말자고 한 적도 있어요. 실제로 한동안 명절 때도 시집이나 친정 어느 곳도 안 갔어요. 하지만 제가 독하지 못해 시간이 지나니 다 해결되더군요.”

김다희 “시아버지와 남편이 같은 팀 소속 선수와 감독이어서 함께 해외에 나갈 때가 많아요. 그날도 시어머니와 함께 공항으로 마중 나가는데 몸이 아파 너무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상봉하는 자리여서 티도 못 내고 있는데 고열과 구토 증상이 더욱 심해졌어요. 시어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운다고 자꾸 전화하셔서 바로 돌아왔지요. 그날 새벽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고, 뇌수막염 판정을 받았어요. 그날 상처를 받고 시댁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이후 시어머니가 먼저 대화의 물꼬를 터 서로 서운하고 힘든 점을 털어놨지요. 시어머니와 조금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도 편해지더군요.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시댁 식구들과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싶어요.”

30대 최선혜
“파워 블로거 활동으로 받은 화장품을 모아 시댁 분들께 나눠드리며 점수 따야죠”

20대 김다희
“남편보다 하루 먼저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어요”

나만의 노하우
이런 며느리가 사랑받는다!

권미란
첫째 시어머니께 용돈을 많이 드린다. 모든 것이 용서된다. **둘째** 항상 상냥할 것. 시어머니와 통화할 때나 만날 때는 철부지같이 애교를 부리며 분위기를 맞춰드린다. **셋째** 시어머니 주변 분들에게 잘한다. 어머니뿐 아니라 고모·삼촌 등 주변 사람들의 용돈을 챙긴다.

최선혜
첫째 어른들은 애교에 약하다. 자주 전화해 “어머님 오늘 뭐하셨어요?”라고 묻는다. **둘째** 남편과 아들의 먹을 것을 잘 챙겨준다. **셋째** 직설화법으로 어느 정도 시어머니가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김다희
첫째 시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남편을 잘 챙겨주고 보살펴준다. **둘째** 오셨을 때 집안을 깨끗하게 해놓고 음식을 맛있게 차려드린다. **셋째** 남편을 닮아 친탁한 손주가 시부모님께 애교를 부리면 좋아하신다.

“여러분께 시월드란 무엇인가요?”

권미란 “처음에는 무슨 철창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결혼 초반 시댁 식구들과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할 당시에는 시댁이 그저 힘들고 주눅드는 공간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서로 나이가 들자 예민한 문제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지금은 시댁이 자유로운 공간으로 여겨져요. 결혼하고 겪는 성장통 같기도 해요. 소녀처럼 살던 내가 시집와 아내도 되고 딸 역할도 하고 남편의 입장에서 아들도 돼보는 복잡한 과정과 상황이 시월드에 녹아 있죠.”

최선혜 “상징적으로 말하면 ‘스위스’ 같은 곳이 아닐까 해요. 시월드에는 영원한 적군도 아군도 없잖아요. 시월드는 중립국가라는 뜻이죠. 처음에는 안 좋았던 감정들도 지금은 많이 닳고 무뎌졌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더 나이가 드시면 지금의 감정과 위치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김다희 “시월드는 내게 제2의 세계죠. 그동안 내가 알던 세계가 아닌 전혀 다른 세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겪고 나니 지금은 인내심도 생기고 나한테 긍정적 영향을 많이 미친 세계예요.”

“이번 명절은 어떻게 지낼 계획인가요?”

권미란 “신정을 쇠는 시댁에서 이번에는 설에도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시댁에서 신정을 지냈지만 다시 한 번 가서 시어머니의 말동무가 돼드리려고 해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나서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월드와 더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해야겠어요.”

최선혜 “역시나 머나먼 길을 가야 하죠.(웃음) 하지만 10년째 가다 보니 이제는 짐 싸는 것부터 모든 면에서 달인이 된 듯해요. 가는 길에 휴게소가 많이 없으니 여행가는 기분으로 맛있는 먹거리도 미리 많이 준비해야죠. 파워 블로거로 활동하다 보니 체험제품이 많이 들어와요. 이것들을 모아 형님과 시어머니께 나눠드리면 매우 좋아하셔요. 이번에도 이런저런 선물을 많이 챙겨가야죠.”

김다희 “지방에서 훈련중인 남편보다 하루 먼저 시댁으로 가서 아이와 함께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예정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함께 해먹으면서 잘 지내야겠죠.” G 사회·정리 김지연 기자

오래 남은 선생님 어머님의 덕담

설이 코앞이다. 설의 추억을 여니 눈송이처럼 풀풀 날아오른다. 살기 위해 어디선가 잘라낸 혹은 잘려나간 그간의 아픈 팔들을 이어 멀리 뻗어본다. 그 팔들을 아주 멀리 뻗으면 긴 간짓대로 따뜻하고 싱싱한 햇덩이 감을 따서 바구니 가득 담을 것 같아서다.

세상의 가장 어두운 시간들을 마시고 삼키고 놀다 잿여지는, 이제는 식량이 된 울음처럼 그동안 먹은 떡국들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토해낸다. 그 아련한 시간들이 해 지는 금강 들녘보다 아름답다. 이 세상은 가난이 존재하는 한 존재하며, 그래서 아름다운 것일까? 50년 전의 설날 풍경이 옆구리를 쿡 찌르자 코끝이 아리다.

모두 목욕탕에 갔다. 깨끗해진 몸으로 동네를 나서면 햇살은 얼마나 환했던가? 새벽부터 가래떡 빚는 행렬이 이어지는 방앗간 골목. 옷과 신은 사주실까 잠을 설쳤지. 때때옷 입은 행렬은 겨울 꽃이었다. 왁자지껄 설날의 콧노래에 밀려 근심은 도망쳐버린 줄 알았을 것이다.

어르신께 큰절 올리면 정성껏 빚은 음식을 차려 주시고 주머니를 털어 설렘을 나눠주셨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설처럼 반가운 시간대는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도 왜 10원짜리 한 장보다 덜 반가웠을까? 부자인데도 멀뚱멀뚱 바라만 보시면 왜 그리 섭섭했을까?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후하게 세뱃돈을 주는 마음을 안다.

보따리에 싼 음식을 따뜻하게 전하려고 바삐 뛰던 시간들을 후손에게 나눠주고 싶다. 가래떡을 늦게 빼는 집안 사정이 야속하던, 기계 속에서 천천히 빠져 나오던 가래떡을 재빨리 뜯어 달아나던 그 빠른 손까지 선물하고 싶다.

세배를 하면 그 귀한 방패연을 나눠 주시던 동네 할아버지네 대문으로 달려가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리던 추억, 좋은 것만 실컷 먹고 입지 못해 더욱 튼실해진 유년도 넘겨주고 싶다. 가족과 이웃 곁에서 명절을 보내려고 도로를 온통 주차장으로 바꾸기도 하는 코리아의 설 풍경을 보따리에 넣어서 말이다.

쉽게 주머니에 넣을 수 없는 구슬이나 딱지·사탕처럼 손에 쥔 감촉만으로도 흡족해지는 이 설날의 추억을 더듬다 보니 잊은 일이 떠오른다. 졸업 후였다. 너무 따뜻하신 P선생님께 드릴 선물이 없어 쓸쓸한데 어머니가 떡국을 끓여 주전자에 넣어 싸고 또 싸고 또 싸서 주셨다. 10리 길을 얼마나 빨리 걸었던지 도착했을 때는 숨쉬기가 어려웠다.

그 마음을 읽으신 선생님의 어머님께서는 싸고 또 싼 보따리를 금방 꿰매 자루를 만드셨다. 그 자루들을 찹쌀과 팥으로 채워 동구밖까지 이고 나오시어 차표를 끊어주시며 "어릴 적 고생은 사서도 한단다. 꼭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 나의 이 자리는 설날의 주전자 속 내 어머니의 떡국, 그날 들려주신 선생님 어머님의 덕담 때문이었구나! 폐가에 홀로 남겨진 큰 장독 대신 그 옛날의 설 풍경이 다시 붐비는 우리 고향을 내가 찾아내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G

글·박라연(시인)

독일 기숙사에서 끓인 만둣국

1981년 독일 뮌스터행 비행기에 올랐다. 당시 나는 의욕이 넘치는 패기만만한 젊은 유학생이었다. 두려운 마음보다 독일유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배움과 기회에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

나는 교수가 귀찮아할 정도로 집요하게 궁금증을 풀어갔다. 시간이 나면 도서관에서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며 지적 갈증을 풀었다.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 한국사람은 아예 만나지 않았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한 해가 흘렀다. 그리고 설을 맞이했다.

태어나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흔들린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독일에서 홀로 맞이한 설은 묘한 감정을 불러왔다. 외로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가 한 상 가득 차려주시는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이 머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정겨운 친지를 만나 어울리고 싶은 느낌을 도저히 떨칠 수 없었다. 1982년 뮌스터대 기숙사에서 홀로 앉아 맞이한 설은 참 우울했다. 이메일은커녕 전화 한 통 걸기도 어렵던 시절이다. 방법을 찾아야 했다. 같은 기숙사에 한국학생이 한 명 있었다. 평소에는 소 닭 보듯 지내던 사이였다. 이름도 몰랐다. 지금도 역시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다. 하지만 어떤가? 민족의 대명절 설이었다. 한민족이라면 함께 어울려야 하지 않겠는가? 찾아가 말을 걸었다. 같이 만둣국을 끓여먹자고. 멀뚱히 쳐다보던 그가 대답했다.

"그럽시다."

가까운 독일 편의점으로 갔다. 밀가루·돼지고기·쇠뼈·야채·마늘 등을 챙겼다. 오는 길에는 한인마트에 들러 참기름과 간장을 챙겼다. 기숙사에 오자마자 식당으로 향했다. 독일인의 식단은 단순하다. 학생들은 더더욱 간편하다. 샌드위치에 우유 한 잔, 저녁에는 소시지에 맥주 한 잔이 전부다. 커다란 냄비에 쇠뼈를 넣고 물을 부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학생은 우리뿐이었다. 5시간 정도 팔팔 끓였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투덜거리는 학생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독일인은 문화적 차이에 대해 대단히 관대한 편이다. 공식적으로 그렇다. 뒷담화를 나누겠지만 어쩌겠는가? 민족의 대명절을 보내기 위해 우리는 만둣국을 끓여야 했다.

육수가 만들어지는 동안 밀가루를 반죽했다. 만두를 만드는 과정에서 맥주병과 물컵의 활약이 컸다. 맥주병으로 얇게 개어 놓은 반죽에 물컵을 지긋이 누르면 동그란 만두피가 찍혀 나온다. 여기에 다진 돼지고기와 잘게 썰어 놓은 잡다한 야채, 으깬 마늘과 두부를 골고루 섞은 만두 속을 채워 넣었다. 묘한 조합이었지만 두어 스푼 담아 넣은 참기름으로 맛을 내기에 충분했다.

얼굴 곳곳에 밀가루를 묻혀가며 만두를 빚었다. 식탁 한 가득 만두가 쌓였다. 냄비에 물을 붓고 정성껏 준비한 육수에 만두를 넣어 끓였다. 달랑 만두 몇 개 둥둥 떠 있는 만둣국이었지만 A학점 맞은 것만큼 뿌듯했다. 우리가 기숙사 식당을 점거한 지 일곱 시간 만의 쾌거였다.

내가 1946년생이니 올해 설은 예순일곱 번째 맞는 설이다. 유학시절 독일에서 보낸 설은 내게 많은 것을 깨우쳐줬다. 고향·친구·그리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다. 따뜻한 음식은 내게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이를 나이 먹고 독일에 가서야 알았던 것이다. G

글·이원복(만화가·덕성여대 교수)

'하 서방'의 처갓집 온돌방 사랑

아름다운 나라 한국에서 생활한 지 벌써 8년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 참 많다. 나는 현재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의 네덜란드투자진흥청 주한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주 업무는 유럽 특히 네덜란드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한국기업을 찾아 이들을 돕는 일이다. 다행히 한국기업들은 유럽의 관문으로 네덜란드를 선호해 일이 많은 편이다. 부임 첫 해 나는 한국인 아내를 만났다. 이후 한국에서 내 삶은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해졌다.

설은 내게는 매우 특별한 명절이다. 결혼한 후 우리 부부는 매년 설이 되면 장인·장모님을 찾아뵙는다. 두 분은 광주광역시에 사신다. 보통 설 이틀 전 아침 일찍 길을 나선다. 가는 동안 우리는 차 안에서 한국노래를 즐겨 듣는다. 나는 발라드도 좋아하지만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차 안에 늘 트로트 CD를 구비해 놓는다.

광주에 도착하면 곧바로 담양의 시골집으로 간다. 처가 쪽 친지들이 모두 그곳에 모이기 때문이다. 처가 식구들은 내 성(姓)인 반 우오든(Van Woerden)이 너무 길어 줄여서 하 서방이라고 부른다. 반 서방 혹은 우오든 서방은 그럴 듯하게 들리지 않는가 보다. 아무튼 내 이름이 하리(Harry)여서 장인어른이 그냥 하 서방이라고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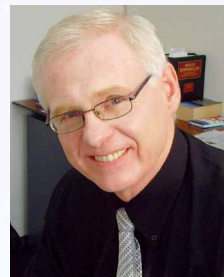
처가에는 온돌방이 있다. 언제나 그렇지만 온돌에서의 잠자리는 정말이지 색다른 경험이다. 2층에 침대가 있지만 처가에 갈 때면 나는 늘 온돌방을 찾는다. 내게는 온돌방에 대한 거부감도 전혀 없다. 오히려 온돌이야말로 수면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차례상을 보고도 의아스러웠다. 다들 왜 그 음식에 손을 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내는 그 음식은 조상을 위한 것이며, 먼저 모두 조상들께 절을 올려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내게는 그 말이 꽤나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조상에 대한 존경의 표시가 매우 고귀한 행위라는 느낌을 받았다. 상에 차려진 음식을 치우고 난 뒤 다시 음식을 올려놓고 식사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다.

친척 아주머니들은 내가 먹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다. 내가 어떤 음식을 집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듯하다. 아마도 외국인인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호기심이 발동하는 듯하다. 바닥에 오래 앉아 함께 식사하는 일이 내게는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다리를 쭉 펴고 벽에 몸을 기대면 모두 웃으면서 너그러이 봐준다.

한국생활도 어느 정도 되었기에 대부분의 한국어는 알아듣지만 아내의 고향에서는 언제나 도전의 연속이다. 보통 이곳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는 사투리를 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내에게 안타까운 눈길을 보낸다. 나도 그렇지만 모두 이 상황을 재미있어 한다.

처가를 떠나는 일도 쉽지는 않다. 보는 친지들마다 하룻밤 더 묵고 가라고 부탁하기 때문이다. 서울로 돌아올 때마다 설은 정말이지 멋지고 영원히 기억에 남을 명절이라는 생각이 든다. G

글·하리 반 우오든(주한 네덜란드투자진흥청 대표)

엇갈린 설날 가족 상봉길

연암 박지원이 읊었다. 선친이 그리울 때는 형의 얼굴을 보고, 형이 그리울 때는 제 얼굴을 냇물에 비춰 본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형과 아우 사이는 그런 것이다.

설날. 7남매 가운데 아들 3형제는 귄속을 거느리고 나주의 고향집에 모인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오는 6월이 되면 어느새 7년이 된다. 어머니 혼자 아버지를 그리며 사신다. "무정한 영감. 어째서 꿈에 한 번 제대로 나타나 보지도 않는 것이여" 하고 원망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들 시간도 없이 자식들을 낳고 기르셨다. 자식들과도 정들 시간이 없이 사셨다. 그러니 정을 나눌 시간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 맏이인 나와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자식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 나를 낳았다니까. 그리고 나는 늘 동생들보다 의젓해야 했으니까.

아버지는 읍 소재지에서 양복점을 하셨고, 어머니는 면의 산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농사를 지으셨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거리는 30리 길. 당연히 나는 아버지 얼굴을 한 달에 한 번꼴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아버지와 친해질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도시로 나가 생활했으니, 친해질 기회가 영영 없어져 버린 것이다. 대학 3학년 때 군에 입대할 때까지도 그랬다.

그런데 참 이상한 변화가 내게 일어났다. 전주에 있는 부대로 배치받고 나니 한 달도 못 돼서 설날이 다가왔다. 집이 그리웠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내내 객지에서 다닐 때도 집이 그리운 적이 별로 없었다. 외로움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심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았다.

1주일에 한 번쯤 단체로 곤욕을 당하고, 낮이면 젖은 탄재 통을 들고 뛰어야 했고, 밤마다 세 시간씩 내무반 동초와 보초를 서야 했다. 지친 몸으로 매트리스에 누우면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설날이나 돼야 집에서 며칠씩 지내시던 아버지 생각, 섣달 그믐날에도 밀린 일을 해낸 뒤에야 밤길을 걷고 걸어 돌아오시던 아버지. 때로는 점심 때가 다 돼서야 돌아오시는 바람에 차례에도 참석하지 못하시던 아버지가 몹시 그리웠다. 그 시절에는 겨울 밤이 왜 그리 춥기까지 했던지.

군대에서 열흘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나는 사람꼴이 아니었다. 밥까지 거의 먹지 못하고 보니 그야말로 중병 환자였다. 오죽했으면 부대장이 집에 가서 쉬고 오라면서, 첫 휴가도 다녀오지 않은 내게 2박3일의 '출장증'을 끊어 줬을까?

나는 집으로 가면서도 연락을 하지 못했다. 시외전화를 하려면 일부러 전화국을 찾아가야 하던 시절이었다. 마음이 바쁘기도 했지만, 그냥 가서 식구들을 놀라게 해도 더욱 큰 기쁨이 될 듯싶었다. 그날이 바로 설날이기도 했다.

전주에서 광주까지, 거기서 다시 고향 나주까지 버스를 타고 갔다. 그리고 정류장에서 집을 향해 달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집 대문이 잠겨 있었다.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는 소식이 없었다. 앞집으로 뒷집으로 다니면서 사정을 알아본 뒤에야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다. 식구들 모두 나를 면회할 양으로 전주로 갔다는 것이었다. G

글·이상문(소설가)

“귀성 9일 오전, 귀경 10일 오후 피해야”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갓길차로제, 확장·신설 구간 활용을”

올해 설 연휴는 유난히 짧다. 사흘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귀성·귀경 교통량이 한꺼번에 몰릴 수밖에 없고, 정체도 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대처하면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통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전국 고속도로를 총괄하는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설 연휴 교통대책 등을 들었다.

장석효 사장은 “귀성·귀경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30분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설 연휴기간 교통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이번 설 연휴기간 전국 교통량은 지난해 설보다 8.7퍼센트 증가한 하루 평균 370만대로 예상됩니다. 설 당일에는 445만대로 정체현상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올해 설 연휴는 3일로 짧습니다. 다른 해와 달리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귀성·귀경길을 언제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귀성길은 설 전날인 9일(토) 오전이, 귀경길은 설 당일인 10일(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이 시간대는 피해서 이동하는 것이 좋겠죠.”

지난해와 비교해 귀성·귀경 시간은 얼마나 더 걸릴까요?

“지난해 설 연휴는 귀성 기간이 귀경 기간보다 길었으나 올해 설 연휴는 당일을 기준으로 똑같이 하루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귀성길은 전년대비 약 2시간, 귀경길은 약 30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타고 전용차로를 이용하면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1시간~1시간30분가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올 설 연휴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귀경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우리 공사는 설 연휴 전날인 2월 8일부터 설 연휴 다음 날인 2월 12일까지 5일간을 특별근무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평상시(275명)보다 2배 정도 인원을 늘려 매일 563명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나섭니다. 또 갓길차로제와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를 시행합니다. 임시 감속차로도 연장합니다. 관할 22개 영업소에서 고속도로 진입차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1년 사이에 새롭게 개통된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지난해 설과 비교할 때 중부내륙선(여주~양평) 19킬로미터, 남해선(목포~광양) 106.8킬로미터, 동해선(하조대~양양) 9.7킬로미터 등 총 135.5킬로미터를 확장하거나 신설해 개통했습니다. 또 양촌·북천안·동김천·고흥 등 4개 나들목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특히 최근 개통한 중부내륙선(여주~양평) 구간도 6번 국도를 경유하면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갓길을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23개 구간(141.7킬로미터)에서 고속도로 갓길차로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5일간은 갓길을 한정적으로 활용하는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운영구간은 경부선·영동선·중부내륙선·천안논산선 등 9개 노선입니다. 시행되는 구간 전방에 입간판·현수막·도로전광표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감속차로제는 귀에 선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감속차로란 고속주행하는 자동차가 감속해 다른 도로로 진입할 경우 본선의 다른 고속 자동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입하도록 설치한 차로를 말합니다. 서해안선 서평택분기점 등 9개소에서 감속차로를 현재보다 약 1킬로미터 길게 운영해 정체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버스전용차로제 운행과 관련해 올해 설 연휴에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총 141킬로미터입니다. 시행기간은 설 연휴 전날인 2월 8일(금)부터 2월 11일(월)까지 4일간입니다. 설 연휴에는 평소보다 4시간 연장해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늘어납니다. 버스전용차로제를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 6만~7만원이 부과되거나 벌점 30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9인승 이상 승용 또는 승합 자동차여야 하고, 승용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 이상 승차해야 합니다.”

영업소 진입을 조절하면 정체 완화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영업소 진입 조절이란 고속도로 본선의 통행속도가 80킬로미터 미만인 인근 영업소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로를 줄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기법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수원 등 전국 22개 영업소에서 진입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영업소에서는 또 영업 부스 추가 개방, 교통안내원 배치, 인근 교차로 신호주기 조절 등을 통해 영업소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사 홈페이지(www.ex.co.kr)나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에서 교통혼잡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을 통해서도 실시간 교통상황을 알 수 있는데, 노선별 정체 현황과 실시간 CCTV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에는 콜센터인 1588-2504를 통해 문자나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설 연휴는 지난해보다 짧아 귀성길은 전년대비 약 2시간, 귀경길은 약 30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전용차로를 이용하면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1시간~1시간30분가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차량 고장이나 사고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차량 사고나 고장이 발생하면 차량을 신속하게 갓길로 이동한 후 가드레일 뒤편 등 도로 밖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조치를 한 후 콜센터에 신속히 사고 제보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눈이 많이 내려 설 연휴기간에도 걱정이 되는데 대비책은 있나요?

“눈으로 인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지원팀을 확대운영합니다. 또 신속한 상황관리와 대응체계를 완비해 놓았습니다. 지자체·군부대·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 등과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폭설로 고속도로에 차량이 고립되는 경우에 대비해 담요·휘발유·경유·소변기 등 구호물품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또 설해 취약구간 42개소에서 긴급대응을 위해 휴게소별로 제설자재를 비축하고 소형 제설장비를 빌려 비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설 연휴기간에 달라지는 서비스는 없습니까?

“우선 고장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기흥휴게소 등 47개소에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휴게소 화장실 이용 혼잡을 줄이기 위해 휴게소 12개소에서 남녀 비율이 1 대 1.5 이상이 되도록 화장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부선 성환 활주로 부지 등을 활용해 대규모 임시 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0동 105칸으로 남 30칸, 여 75칸입니다. 아울러 휴게소 주유소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비스 인력을 7,651명에서 1만304명으로 2,653명 증원했습니다. 교통정리원도 134명에서 484명으로 350명 증원해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168개 휴게소(419건)와 158개 주유소(300건)에서 설 연휴기간 특별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G

글·박기태 기자

1월 30일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힘차게 하늘을 향해 오르고 있다. 연합

우주강국으로 가는 위대한 신호탄

정전 상황의 기술개발 어려움 이겨내… 해외 우주 프로젝트 참여 티켓 확보

나로호가 드디어 나로과학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이제까지 외국의 눈치를 봐야 했던 한국과학의 설움이 씻기는 순간이다. 우주발사체 기술은 과학선진국으로 가는 큰 단계 중 하나다. 여러 나라에서 성공했던 우주발사 기술이다. 세계 우주과학 수준에서 보면 나로호 발사 성공은 작은 걸음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작은 걸음은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신호탄이다.

작고 푸른 점. 우주인이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다. 이 푸른 구슬에 사는 인간들은 끝없이 하늘을 바라본다. 구슬을 깨고 한 발 내딛고 싶어한다. 인간이 우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다. 경외심까지 섞어 그저 바라볼 뿐이던 하늘과 우주에서 어떤 이익을 얻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본 적은 그리 없었다.

하늘은 몹시 궁금한 대상이었다. 저 위 하늘을 넘으면 무엇이 있을지, 공기층을 넘어 그 위로 올라가면 어디로 가게 될지, 달은 실제로 무엇으로 구성돼 있는지, 화성에는 생명체가 있는지…. 이런 공상이 강한 호기심을 만들어냈다. 그저 지상에서 하루 하루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두었다면 인간은 우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릴 필요가 없었다.

하물며 사람을 우주공간으로 보내겠다는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인간은 끝없이 우주로 가고 싶어했다. 이러한 열망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인간이 만든 기계를 연거푸 쏘아 올리게 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기구 등을 타고 적잖은 높이까지 올라갔다. 비행기를 개조해 더 높은 곳까지 비행에 나섰다. 하늘에서 한계를 시험하던 사람들은 간혹 저체온과 질식으로 사망했다.

올라갈수록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벨탑을 만들던 고대인들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우주에 도전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은 지구 중력을 벗어나 생활할 수 있는 데까지 발전했다. 우주궤도에서 생활하다 돌아오는 것은 이제 큰일도 아니게 됐다.

달에 직접 사람이 다녀오는 일은 이미 수십 년 전 일이다. 이제는 그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화성에 로봇을 보내 외계생명체를 찾는다. 몇 년 전에는 화성으로 유인우주선을 보내는 계획까지 나왔다. 머지않은 미래에 화성에도 인간의 발자국이 새겨질지 모른다. 오랜 세계 우주개발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의 우주과학은 아직 소박해 보인다. 유인우주선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흔히 이뤄내는 인공위성 발사를 이제 겨우 성공한 수준이다. 여러 분야 과학기술에서 세계 수위를 달리면서도 유독 우주기술에서만큼은 더딘 행보였다. 다른 나라 발사체를 빌려 한국의 인공위성을 올려놓은 경험도 많았다. 그럼에도 우주발사체 한 번 성공하지 못한 것이 의아할 정도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발사체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기술이다. 인공위성 대신 각종 폭탄을 탑재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중인 남북 간 긴장관계 때문에 한국은 그동안 발사체 연구만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선진개발국들 역시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놓인 한국에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했다.

세계각국이 미사일 발사체 기술을 개발할 때도 한국 과학자들은 손발이 묶여 있었다. 그래서 우주발사체 기술은 한국 과학기술자들에게 일종의 '한(恨)맺힌 기술' 분야였다. 굳이 어렵게 직접 발사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외국의 우주센터에 발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면 향후 영원히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없다.

발사체 기술 보유는 우주개발사의 대한독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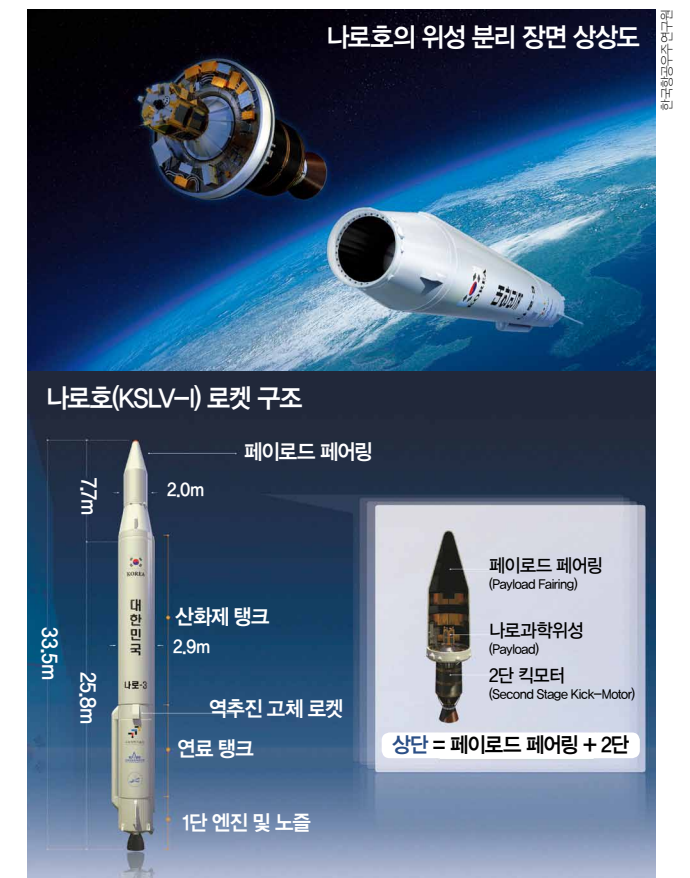
반드시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하는데도 외국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나로호 발사 성공은 '우주개발사의 대한독립'이다.

나로호 발사를 주도한 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호 발사 성공의 의미와 가치를 여러 가지로 평가한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 첨단 대형 시스템 기술인 발사체 기술을 확보했다. 그동안 한국에 없던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한 것이다. 국내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기술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이 우주개발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도 있다. 자연스럽게 국제 우주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된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나로호가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 어느 나라든 우주개발은 국가의 총체적 과학기술력을 상징한다.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주에 대한 관심을 크게 증대시킨다. 우주개발 성공은 국가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우주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노릴 수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일본·중국·미국 등 세계 주요국이 우주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다. 우주개발 선진국들은 인공위성 활용을 넘어 외계 우주 탐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이 반열에 뛰어들 기초를 만든 것이다.

나로호 발사 성공은 한국 우주개발 역사의 성과인 동시에 첫 걸음을 의미한다. 이제 한국은 본격적으로 우주로 나아갈 면허를 땄을 뿐이다. G

글·박상주 기자

두 차례 실패 겪으며 노하우 차곡차곡

45개 대학·연구소, 150여 기업 참여한 초대형 프로젝트 10년 대장정

2013년 1월 30일. 위성으로부터 시그널(신호)이 날아들었다. '전 기능 이상 없음.' 전국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로 쓰였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는 2전3기 끝에 발사에 성공했다. 나로호는 그 자체가 드라마틱한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산 역사다.

나로호(KSLV-I) 3차 발사가 진행된 지난 1월 30일 전남 고흥군 고흥우주발사전망대에 나온 시민들이 나로호 발사 장면을 보고 환호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한국 우주개발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1989년 설립 이후 한국의 우주개발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성과가 1992년 8월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한 인공위성 우리별 1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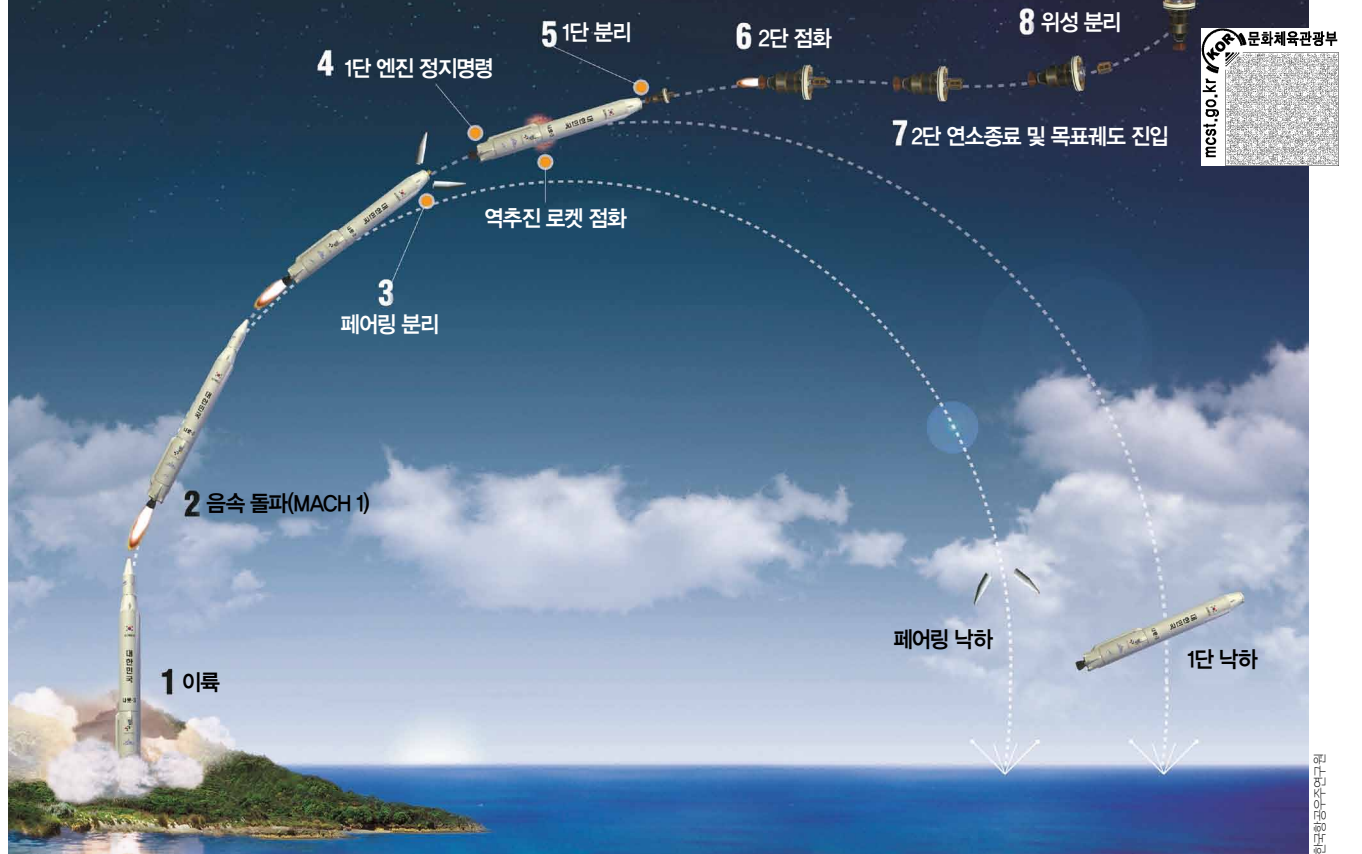
우리별 1호는 순수 우리 기술로 제작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별 1호를 개발하고 운용하며 쌓은 자신감과 기술은 이후 우리 우주개발의 시금석이 됐다.

이후 연이어 우리별 2호·우리별 3호·무궁화위성·천리안위성 등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의 우주 진출은 국민에게 우주기술강국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위성 개발과 운용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한국 과학기술계의 과제는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발사체 개발에 집중된다. 발사체 기술 개발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위성 개발부터 궤도 진입, 운용까지의 전 주기적 인공위성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로켓'이라고 불리는 발사체 개발은 우리나라가 우주로 진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준공되자 국민적 관심

이에 정부는 2002년 8월 '소형위성발사체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최초의 발사체 나로호 개발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약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 사업의 목표는 100킬로그램급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이다. 항우연을 포함한 45개 대학·연구소와 대한항공·삼성테크윈 등 150여 기업이 참여한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우주개발 선진국인 러시아도 기술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나로호 개발은 예상 밖으로 여러 난관에 부닥쳤다. 1단(하단) 로켓 제작을 맡은 러시아 측의 요구로 두 번이나 개발 완료 시기가 수정되는가 하면 발사예정일도 네 차례나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원래 2008년 말이었던 발사예정일은 2009년 하반기로 늦춰졌다.

발사예정일 연기에도 2009년 6월 전남 고흥에 나로우주센터가 준공됐다.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쏟으면서 나로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서서히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이소연 박사가 강연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준공식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나로호 도약대 삼아 한국형 발사체 개발 추진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국민 이벤트 및 프로모션이 진행돼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발사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정부 역시 최초의 발사체 나로호에 이어 2018년까지 한국형발사체(KSLV-II)를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1차 발사 예정일은 2009년 8월 19일. 그러나 이날 나로호는 발사대를 떠나지 못했다. 압력 측정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발사는 그 달 25일로 연기됐다. 나로호는 처음에는 '나로과학위성(STSAT-2C)'을 싣고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나로호는 페어링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위성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데 실패했다. 절반의 성공이었다.

안타깝게도 다음 해인 2010년 6월 진행된 2차 발사 시도는 더욱 비극적이었다. 발사대를 떠난 나로호가 137초 만에 폭발해버린 것이다. 고체연료 폭발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하지만 나로호에 10년을 투자했던 과학자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1, 2차 실패의 교훈을 바탕 삼아 바로 3차 발사준비에 들어갔다. 1차 실패의 원인이 된 페어링은 10차례의 분리시험을 거쳤다. 2차 발사에서 고체연료의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종단시스템(FTS)도 제거했다.

3차 발사 역시 한 번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2012년 10월 다시 발사에 나섰지만 준비 과정에서 기체 밀봉용 실이 찢어져 연기됐다. 이후 교체작업을 거쳐 11월 29일 다시 발사대에 섰지만 발사예정시각을 불과 16분 앞두고 과전류 문제로 발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무수한 실패도 한국 과학기술진의 우주를 향한 집념을 막을 수는 없었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우주로 발사됐다. 임무에 성공한 것이다.

항우연은 나로호의 발사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km)에 진입시킬 수 있는 독자적 우주발사체를 개발할 방침이다. 비록 10번의 발사 연기와 2차례의 실패가 있었지만, 이를 디딤돌로 삼아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진정한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G

글·김청현(동아사이언스 기자)

“이제 어떤 로켓도 만든다” 자신감 충천

터보펌프·킥 모터·페어링 개발한 3인, 한국형 발사체 독자개발 다짐

나로호 발사 성공까지 수많은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발사가 좌절될 때마다 온 국민의 실망감을 뒤로 하고 남 몰래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있었다. 외로운 섬 외나로도를 의연하게 지키던 우주과학기술자들이다. 나로우주센터에 조명이 꺼지면 이들 숨은 일꾼은 다시 실험실을 찾았다. 한국을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시키고 국민에게 자긍심을 안긴 영광의 우주과학기술자들이 여기 있다.

나로호는 액체 로켓을 쓴다. 액체 로켓은 연료와 산화제를 연소시켜 추진력을 얻는다. 이때 탱크에 저장한 저압의 연료와 산화제를 고압으로 연소실에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는 핵심 부품이 ‘발사체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터보펌프’다. 사람 몸에 비유하면 피를 공급하는 심장과 같다.

외국에서도 터보펌프는 개발이 어려운 분야로 손꼽힌다. 1999년 발사에 실패한 일본의 H-II 로켓도 터보펌프의 공급장치 손상이 문제였다. 우리 역시 그동안 터보펌프 제작 기술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로호 전체 개발 과정에서도 돌파해야 할 난관 중 하나였다. 우리의 과학기술자들은 터보펌프 자체개발을 목표로 액체 엔진 관련 기술을 익히고 자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30톤급 액체 엔진이 주 개발과제였다.

김진한 터보펌프팀장

“2014년에는 우리가 만든 75톤급 터보펌프가 한국형 발사체를 밀어 올릴 것입니다.”

이 과제를 맡은 이가 김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터보펌프팀장이다. 2008년 김 팀장은 꿈에 그리던 30톤급 터보펌프 개발을 완료했다. 펌프 내 베어링을 제외하고 모든 부품의 설계·제작·시험을 국내기술로 완성했다. 물론 단번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2007년 해외에서 수행한 성능검증실험에서 김 팀장의 터보펌프가 폭발했다. 1년간 재설계와 부분품 시험을 거쳐 또 다시 성능검증실험을 거쳤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엔진은 전 작동영역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나타냈다.

항우연은 현재 30톤급 터보펌프 개발을 기초로 75톤급 터보펌프를 개발중이다. 2012년 시제품을 만들었다. 국내 시험설비가 완공되는 2014년 말 75톤급 터보펌프에 대한 성능시험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형 터보펌프는 향후 한국형 우주발사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한국형 발사체가 오롯이 독자기술로 만들어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조인현 체계종합팀장

“운명처럼 맡은 킥 모터 개발, 길 잃은 위성을 제자리에 놓는 일 이제 제게 맡겨만 주세요.”

조인현 나로호체계종합팀장은 나로호 2단 로켓의 ‘발’ 역할을 하는 고체 ‘킥 모터’를 개발했다. 나로호는 발사 후 꼭 390초가 됐을 때 킥 모터를 작동시킨다. 1.6톤이나 되는 추진체(연료)를 담은 킥 모터는 마치 발로 도약하는 방식으로 추진력을 얻도록 하는 부품이다. 나로호 상단부를 움직여 과학기술위성 2호를 목표 궤도에 올려놓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 팀장은 “나로호가 이륙하는 순간 킥 모터가 제대로 작동하기만 간절히 바랐다”고 말한다. 킥 모터의 우수한 성능은 2009년 나로호 1차 발사 때 한 차례 증명됐다. 1차 발사는 실패했지만 이때도 킥 모터는 정상적으로 점화됐다. 이번 3차 발사에서 조 팀장의 킥 모터는 톡톡히 제 구실을 했다. 나로호에 탑재한 위성을 우주 궤도의 제 위치에 올려놓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위성이 제 위치에 들어서지 못하면 수명이 극히 짧아지거나 교신이 끊긴다. 조 팀장의 킥 모터가 그런 우려를 한방에 날린 것이다.

조 팀장은 대우중공업에서 국내 최초 국산 기본훈련기인 KT-1 개발에 참여했다 비교적 늦은 1997년 항우연에 합류했다.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 발사 직후인 1월 30일 대전 구성동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 연구원들이 나로과학위성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유체역학을 공부하고 연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유체와 연소를 모두 다뤄야 하는 킥 모터 분야를 맡게 됐다. 조 팀장은 “마치 운명처럼 킥 모터를 개발하게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어디에든 장착 가능한 킥 모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나로호 최상단은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 곧 페어링(Fairing)이다. 발사체가 궤도에 근접할 때까지 올라가면 페어링은 두 조각으로 분리된다. 올라갈 때까지는 단단히 고정돼야 하고, 필요할 때는 깨끗하고 완전하게 나뉘어야 한다.

장영순 발사체구조팀장

“1차 발사 실패 이후 실험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페어링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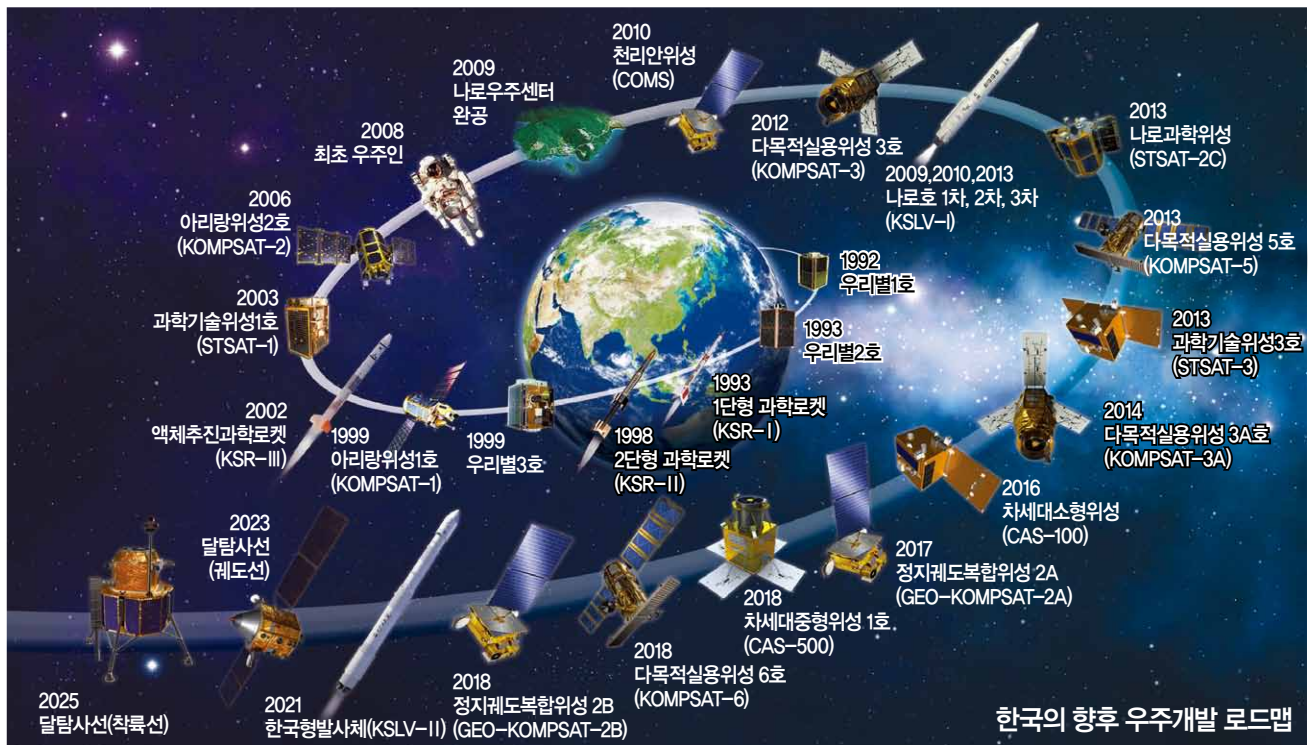
이 페어링 담당자가 장영순 발사체구조팀장이다. 2009년 8월 25일 나로호 1차 발사 실패의 원인은 바로 페어링 분리 실패였다. 페어링 두 쪽 중 하나가 분리되지 않아 한 순간에 나로호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당시 가장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장 팀장이다.

장 팀장은 “1차 발사에 실패한 이후 사생활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나로호 실패의 장본인인 것처럼 온갖 비난을 혼자 감수해야 했다. 장 팀장은 이런저런 말을 귀로 들으면서도 늘 실험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같은 페어링으로만 400차례 넘게 실험을 거듭했다. 실험이 분명하게 성공해도 같은 실험을 계속했다.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번 나로호 3차 발사에서 페어링은 깔끔하게 작동했다. 정확한 시간에 완벽히 제 기능을 다했다. 장 팀장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 얻은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감”이라면서 “나와 우리 팀은 이제 어떤 발사체의 페어링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만들어지는 한국형 발사체는 100퍼센트 국산기술로 만들어지는 토종 로켓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성공한 나로호 2단 로켓의 페어링은 지름이 2.9미터다. 향후 만들어질 한국형 발사체는 이보다 굵은 3.3미터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페어링의 지름 2.9미터와 3.3미터는 작은 차이 같지만, 이를 만드는 것은 몇 배 더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를 ‘극한의 기술’이라고 표현한다.

장 팀장은 “400번이 넘는 실험에서 얻은 실력을 발휘해 3.3미터짜리 페어링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G

글·박상주 기자

다양한 위성 맞춤제작 라인업 갖춰

민간참여 확대로 국내 수요 넘어 위성기술 수출시장 진출 채비

한국의 우주과학기술 개발자들은 '우리별'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1990년대 '우리별'은 한국을 인공위성 보유국으로 만든 상징적 인공위성 시리즈다. 이후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은 끊임없이 인공위성 개발을 거듭했다. 이제 세계인의 머리 위에 한국의 위성이 늘 떠 있다. 한국 과학자들에게 우주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나로호 성공을 계기로 한국 위성기술은 수출까지 준비 중이다.

우주과학기술은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만큼 높은 하늘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우주과학기술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증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웬만한 자동차라면 한 대 이상씩 장착한 내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서비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축구경기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중계방송, 매일 나오는 기상예보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름의 위치 등의 정보가 모두 인공위성을 통해 생성되거나 전달된다.

그만큼 우주과학기술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우주과학기술은 교통·환경·해양·기상관측·재해감시·자원탐사 등 광범위하게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한국은 현재까지 약 10기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인공위성의 수명은 정지궤도위성이 10~15년, 저궤도위성이 3~5년이다. 저궤도위성은 과학위성이나 지구관측위성 등을 말한다. 현재의 위성 수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정지궤도위성은 5~7년에 1기씩, 저궤도위성은 3~5년에 4기씩 우주궤도에 올려야 한다. 대략 매년 1기 정도의 위성 수요가 발생하는 셈이다. 여기에 정밀관측위성 등을 추가한다면 한국의 위성 수요는 더욱 늘어난다.

한국 우주과학기술의 1차 목표는 국내 인공위성 수요부터 해결하는 것이다. 우주개발 당국은 국내 위성 수요를 넘어 아시아권 우주개발 블록 형성 움직임에도 주목한다. 향후 우주개발사업의 주축으로 떠오를 중국·일본과 함께 세계 우주개발산업에 동참하는 것을 목표로 실력 배양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다목적 실용위성 1호와 2호를 개발하면서 위성영상 및 지상국 수출로 기존 항공우주산업 수출액의 37.2배의 수출증가 효과를 올렸다. 고용 창출 효과는 일반 항공우주산업에 비해 3배 가량 높아졌다.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1호가 1,572억원, 2호가 4,824억원에 달한다. 2009년에는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의 위성영상을 유럽우주기구(ESA)에 3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해 2,200만 달러(약 290억원)를 벌어들였다.

세계 우주시장 연평균 7% 이상 성장

세계 우주시장은 2011년 기준 2,898억 달러에 달한다. 2010년과 비교하면 12.2퍼센트 증가했다. 연평균 시장성장률도 7퍼센트가 넘는다. 이 가운데 한국의 우주기기 제작, 위성통신방송 등 국내 우주산업 매출액은 7,960억원으로 2010년 기준 세계시장의 0.4퍼센트에 불과하다.

한국의 우주개발 역사는 20년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 비약적 성장을 한 것이 사실이다.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우주개발사업을 시작했지만 점차 민간 비중이 늘고 있다. 최근 만들어진 아리랑 3A호 개발에는 민간의 연구개발 참여 비중이 더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이 위성을 한국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본격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우주과학기술은 전 세계가 힘을 모아 진전시키는 특징이 있다. 세계는 각국의 경제력과 국제적 지위에 맞게 우주개발비를 투자하며 국제사회에 공헌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기상위성으로 확보한 데이터는 이를 필요로 하는 세계 각국에 제공한다. 올해 발사 예정인 통신해양기상위성 천리안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기상관측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의 위상이 정보수혜국에서 정보제공국으로 올라설 기회다.

한국은 그동안 발전시켜온 인공위성 개발기술을 토대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채비를 서두른다. 2012년 5월 발사한 아리랑 3호는 일부 부품 생산을 제외하고 위성 본체와 탑재체 기술, 위성 조립 및 시험 등 까다로운 개발 과정을 한국 자체기술로 해결했다. 또 한국은 위성과 교신을 위한 지상국 설비와 운용기술, 위성영상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다.

한국의 우주산업 관련 기술력

기술분야	원천기술명	활용분야	파급기술명	실시기업
우주발사체	발사체용 내압용기 용접	기타산업	극성가변용접장치	두원중공업
	스피닝 기술	방위산업	스피닝 기술	
	나로호(KSLV-I) 시뮬레이터 기술	조선산업	선박 시뮬레이터 기술	탑엔지니어링
	나로호(KSLV-I) 발사통제 및 발사관제 기술	조선산업	선박 자동화 기술	
인공위성	위성 탑재 컴퓨터 개발 기술	항공산업	데이터 처리기술	한국항공우주산업
	위성체 본체기술	원자력분야	환경방사선감시기	쎄트렉아이
	위성통신을 위한 필터 기술	통신산업	유전체 공진기를 이용한 수동소자	링스웨이브
	정밀 광학계 조정기술	우주산업	위성 탑재용 고해상도 카메라 초정보정 광학계 전자현미경 제작 기술	이오시스템
위성통신	위성 탑재체를 위한 고주파 부품설계	위성 서비스산업	Ku-band LNB, BUC Ka-band Transceiver	코스페이스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의 우주과학기술력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이 점유했던 세계 우주시장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채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향후 10년간 위성 수요는 50퍼센트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이 한국의 주 무대가 될 전망이다.

위성부터 데이터까지 포괄 시스템 수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한국 위성 시스템의 상용화와 수출을 노린다. 위성 개발과 운용, 영상 활용 분야를 포괄하는 상용 시스템을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위성 본체 부문만 해도 10킬로그램급 초소형부터 3톤에 달하는 대형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했다. 탑재체는 전자광학카메라, 레이더영상(SAR) 등 중저해상도부터 초고해상도까지 포괄적으로 개발한 상태다. 항우연은 향후 세계 각국의 주문에 따라 맞춤식 위성 모델을 제작 판매할 예정이다. 아리랑 5호 및 3호, 3A호 등이 찍어 보내는 고해상도 영상도 수출할 계획이다.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다. G

글·박상주 기자

상용 로켓 시장 놓고 열강 각축전

‘우주산업’ 선점 위해 중·일, 러·유럽 맹추격…인도도 위성 10기 탑재 로켓 성공

세계의 우주개발 경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선진 우주기술을 보유한 주요국들이 연이어 굵직한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한동안 존립 가치를 의심받던 미 항공우주국(NASA)은 숨통이 트였다. 겨울잠이라도 자듯 기존 로켓 기술 판매에만 열을 올리던 러시아도 새로운 계획을 내놓았다. 또 다시 붐을 이루는 세계의 우주개발 경쟁 현주소다.

전통적인 우주개발 선진국인 미국과 러시아만 주목받는 것은 아니다. 뒤늦게 활동을 시작한 거인 중국은 유인우주선을 발사하며 급격한 성장속도를 과시했다. 일본도 우주개발계획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우주개발 붐이 50여 년 전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우주개발 초기만 해도 실용적 목적보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간 자존심 대결이라는 측면이 강했다. 물론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나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익스플로러 1호의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벤 앨런대(지구를 둘러싼 강한 방사선층)’를 발견해내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투입된 비용에 비하면 과다한 지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유인우주선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경향은 심화했다. 1960년대 미·소 양국 간 우주개발 경쟁은 1969년의 달 착륙에 이르기까지 국운을 건 경쟁 속에 진행됐다. 하지만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기점으로 우주에 대한 관심은 과열될 때만큼이나 빠르게 식어갔다.

중국은 지난해 6월 실험용 우주정거장 텐궁 1호와 도킹을 위한 선저우 9호 발사에 성공했다. 발사에 앞서 열린 환송식에서 중국 최초의 여성우주인 류양이 중국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애초 체제경쟁의 성격이 강했던 만큼 달에 먼저 사람을 보낸 미국의 승리로 일단 결론이 내려지자 양국 모두 더 이상 우주계획을 추진할 명분이 부족해진 것이다. 소련 역시 수많은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난립한 데다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면서 예산에 압박을 느끼던 참이었다. 게다가 아폴로 11호가 발사될 즈음 미·소 이외의 다른 나라들도 우주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두 초강대국이 경쟁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했다.

우주개발 트렌드 경쟁에서 협력으로

그러나 1975년부터 우주개발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계속했다. 비록 주요 프로젝트가 축소되거나 여러 사업이 통합되는 등 어느 정도의 위축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우주개발’이라는 명제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결정적 계기는 아폴로-소유즈 시험계획이었다. 미국의 아폴로 18호와 소련의 소유즈 19호가 우주공간에서 도킹에 성공했다. 적국의 우주비행사가 서로 상대방 우주선을 방문함으로써 ‘경쟁’한다는 생각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셈이 되었다.

이후 오랜 기간 우주개발은 완만하나마 꾸준하게 진행된다. 미·소 우주경쟁은 종료됐지만 통신 등 위성과 관련한 사업은 궤도에 올라 자체적으로 발전을 거듭했다. 미국과 소련이 유인 우주왕복선 프로젝트에 눈길을 돌린 것도 이 즈음이었다. 급증하는 위성 발사 수요를 충당하고 발사한 인공위성을 관리하기에는 이전의 1회용 우주선만으로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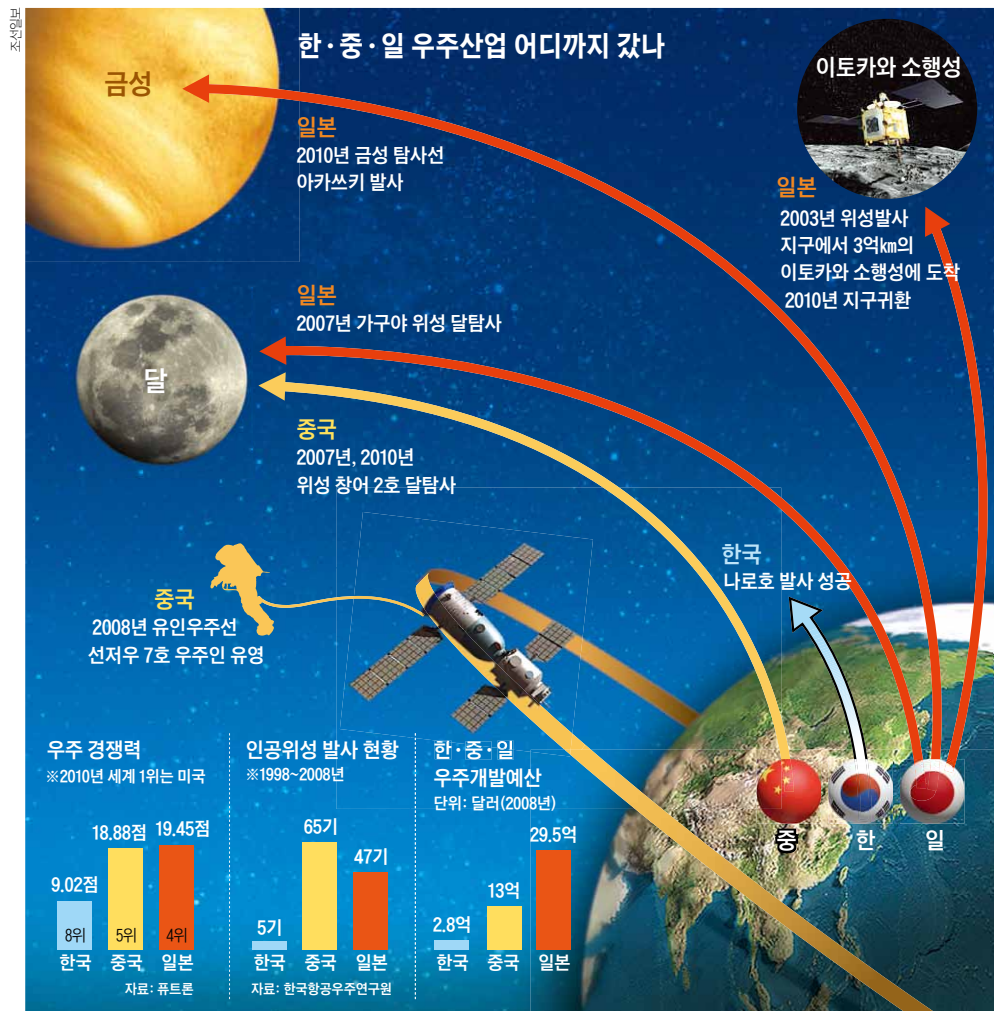
1980년대부터는 ‘산업’으로서 우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럽과 일본·중국·인도 등의 국가도 우주개발에 동참했다. 1960년대에 이어 ‘제2의 우주경쟁’이라고 할 만한 시대가 열린 것이다. 유럽은 미국·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이 분야에서 선두를 점한다. 20세기 말부터 유럽우주국(ESA)은 아리안 4호로 상용 로켓 분야에서 미국의 선두 자리를 빼앗았다.

ESA는 단순히 상용 로켓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무인 탐사사업에서도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ESA는 2030년까지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는 목표 하에 러시아와 화성탐사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의 경제위기와 경쟁국들의 성장으로 ESA의 우주개발은 다소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중국·인도는 독자노선 통해 우주기술 발전

일본 역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우주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1970년 일본은 최초의 독자개발 로켓인 람다4S 발사에 성공했다. 그 이후 최근에는 달 탐사위성인 가구야, 이온엔진 시험과 소행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하야부사가 활약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우주왕복선이 완전히 퇴역한 이후 일본의 HTV나 H-IIB는 최대 국제 우주정거장 보급선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과 인도는 독자노선을 통해 우주기술을 발전시켰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중국은 덩샤오핑 전 국가주석의 강력한 지원 하에 중국국가항천국이 유인우주선 계획인 선저우계획을 추진했다. 그리고 선저우 5호와 선저우 6호가 유인비행에 성공했다. 유인우주선 성공 국가로는 세 번째, 인공위성 발사국으로는 다섯 번째다. 이를 두고 사실상 일본을 앞지른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2014년 발사가 예정된 창정 5호는 탑재능력을 대폭 업그레이드해 향후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도는 인도우주연구기구를 중심으로 우주개발을 진행했다. 2007년부터는 상용 로켓 시장에도 뛰어들어 2008년 4월 5개국 위성 총 10기를 탑재한 PSLV-C9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 번 발사로 가장 많은 위성을 궤도에 올려놨다. 2008년에는 무인 달탐사선인 찬드라얀 1호를 발사하고 단독 유인우주비행을 계획하는 중이다. 인도는 지금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위성 개발 능력을 보유했지만 발사체 관련 기술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 안가라 로켓의 1단계 추진체를 기반으로 나로호를 개발했다. 기술적으로 원숙한 단계에 이르렀지만 아직 성공률은 낮은 것으로 봐야 한다.

20세기 후반 발사한 인공위성 중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실패한 위성은 거의 15%에 이른다. 신흥 우주강국으로 떠오른 일본과 중국 역시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2003년 일본의 H2A가 발사 중 폭발했다. 1996년 중국의 CZ-3B가 경로이탈로 지상에 추락해 커다란 인명피해를 내는 시련도 겪었다. 세계의 우주경쟁은 앞으로도 더욱 불이 붙을 전망이다. 우주개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기 때문이다. G

글·김택원 (동아사이언스 기자)

"75톤급 독자기술 로켓 개발에 매진"

이주호 교과부 장관 "2021년 한국형발사체(KSLV–Ⅱ) 발사계획 앞당기려 노력할 것"

나로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한국의 우주개발 역량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나로호의 성공적 발사로 한국은 2002년 8월 소형위성발사체사업에 착수한 지 10년 만에 세계 11번째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나로호 발사 성공 브리핑에서 "오늘의 감격을 힘찬 동력으로 삼아 한국형 우주발사체를 독자개발해 2020년경에는 우리 기술로 우주로 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형발사체(KSLV–Ⅱ)'는 나로호와 달리 순수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하는 우주발사체다. KSLV–Ⅱ는 2011년 말 국가우주위원회가 한국형발사체개발계획(2010~2021)으로 확정한 모델이다. 순수 국내기술로 아리랑위성과 맞먹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킬로미터)에 올려 놓는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우주발사체를 독자개발해 2020년경 우리 기술로 우주로 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 얼마나 빨리 이를 성공시킬 수 있느냐는 정부의 의지와 재정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KSLV–Ⅱ는 러시아에 1단(하단) 제작을 맡긴 나로호와 많은 점에서 다르다. 1단 추진체의 액체 엔진까지 모두 한국 자체기술로 개발한다. 3단으로 이뤄질 KSLV–Ⅱ의 길이와 무게는 각각 46.5미터와 200톤으로 나로호(33미터, 142톤)보다 더 길고 무겁다. 1단 로켓의 추진력도 75톤 엔진 4개를 묶어 총 300톤에 이른다. 나로호(170톤)의 거의 2배에 이르는 추진력이다. 정부는 KSLV–Ⅱ에 대해 "우리의 우주기술력이 완전한 자립을 이룬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한국형 발사체 성공여부는 새 정부 의지와 재정지원에 따를 것"

정부는 나로호 발사에 앞서 우주분야 중장기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발사체·위성·우주탐사 등 우주개발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우주선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성공을 계기로 이보다 앞서 나로호에 비해 좀 더 작은 규모의 로켓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1월 1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 전에 75톤급 엔진 하나로 추진하는 로켓을 먼저 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양성광 교과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KSLV–Ⅱ를 당초 2021년에 쏜다고 했지만 박 당선인 측이 일정을 앞당긴다고 한 만큼 협의를 통해 우선 75톤짜리 엔진 하나로 구성된 로켓으로 500킬로그램짜리 소형위성부터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은 "얼마나 빠르게 한국형 발사체를 성공시킬 수 있느냐는 정부의 의지와 재정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나로호가 이번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로호 발사 성공에 따라 한국형 발사체 개발계획을 전면수정해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중이다.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조기 도약할 발판을 다진 것이다. G

글·김지연 기자

중앙포토

이주호 장관이 지난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나로호 발사 성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행복을 만끽해다오”

저마다 고유의 사연과 비슷한 경험 가진 가족들과 대화

스페셜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인 1월 28일,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컨벤션센터 입구는 하루 종일 외국인들로 북적거렸다. 이곳에는 출전 선수 가족의 편의를 돕는 웰컴센터가 있었다. 이날 오후 반나절 동안에만 모두 370명의 가족이 이곳을 찾았다.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진행을 맡은 맨디 머피 씨는 “가족 한 명 한 명마다 특별한 사연이 있다”며 “가족들의 이야기가 스페셜올림픽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메리 레스카우스키(미국 스노보드 선수 데이몬 카사시의 이모, 사진 오른쪽)

“불리한 조건 이겨낸 조카 사랑스러워”

미국 미시간에서 온 메리 레스카우스키와 바바라 윈체스터(사진왼쪽)는 스페셜올림픽 미국 스키팀 코치 출신이다. 교사인 바바라와 간호사인 메리는 20년 넘게 스페셜올림픽에서 미국선수들을 돌보며 우정을 쌓았다. 메리는 코치 시절을 돌아보며 “보람된 일이지만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선수와 감정을 공유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6년 전 올림픽 코치에서 은퇴했다. 하지만 메리의 조카 데이몬 카사시를 위해 둘은 다시 뭉치게 됐다. 지적장애인인 데이몬이 열다섯의 나이에 미국 스노보드팀 대표선수로 선발된 것이다. 메리 역시 데이몬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한다.

“조카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속도가 일반인보다 느려요. 그래서 스노보드를 연습할 때 특별히 제작한 종을 울려 언제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알려줬어요.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 자신을 이겨낸 조카를 보면 그냥 늘 안아주고 싶답니다.”

바바라는 미국에도 엄연히 지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학교와 특수학교를 오가며 교사생활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는 스포츠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을 높이 평가한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은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사람 사이의 문제가 훨씬 줄어들겠지요? 스페셜올림픽은 지적장애인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위대한 대회입니다. 한국에서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나려는데 메리가 소매를 잡았다. 꼭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평창행 버스를 타기 위해 고생하고 있었는데, 영어를 전혀 못하는 택시기사가 나타나 몸짓 발짓을 해가며 자신을 버스로 안내해준 사연이었다.

메리는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그 택시기사에게 이런 인사를 남겼다.

“아저씨의 친절에 정말 감사 드립니다. 한국에 처음 와서 잠시 어리둥절했는데,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워드 버클(캐나다 크로스컨트리 선수 세인 스튜어트의 아버지)

“캐나다 대표까지 돼 마을의 자랑이죠”

“우리 아들은 마을의 자랑입니다. 모두 세인을 좋아해요.”

하워드 버클은 캐나다 앨버타주의 작은 마을 스모캔 출신이다. 스페셜올림픽 크로스컨트리 선수로 출전한 아들 세인 스튜어트를 그는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장애를 이겨내고 꿋꿋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대견한데 이제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선수로 우뚝 선 모습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다.

세인의 나이는 스물아홉. 마을 편의점에서 일한다. 평균지능은 정상인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편이지만 착하고 성실해 친구도 많고 마을사람들도 모두 세인을 좋아한다고 한다. 캐나다 대표선수까지 됐으니 마을의 자랑이라는 것이다.

아들과 성이 다른 점이 궁금해 물으니 양아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아들을 키우는 동안 어려웠다기보다 오히려 세인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더욱 행복해 졌다고 말했다.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자 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아들이 경기를 시작하면 큰소리로 응원할 것입니다. 아들! 무조건 즐겨. 사랑한다.”

지미연 기자

스페셜올림픽 연구를 위해 미국 사우스다코다주에 있는 블랙힐스 주립대학 학생들이 평창을 찾았다. 이들은 심리학·교육학·스포츠과학 전공 대학생들로 스포츠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크리스토퍼와 엘시 언드룸(영국 스키선수 미카엘 언드룸의 부모)

“친구 많이 사귀어 행복해지길”

“영국에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중 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법과 제도도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지는 못합니다. 아들을 키우며 상처받는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에 좌절하고 세상을 원망하거나 당당히 맞서거나 하는 선택은 당사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온 크리스토퍼 언드룸과 그의 아내 엘시 언드룸 부부는 평창스페셜올림픽에 온 것이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말한다. 그들 부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수많은 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언드룸 부부의 아들 미카엘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한다. 아들이 5년 전 스키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부부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사고가 우려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스키 실력은 날이 갈수록 늘었다.

“영국에서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는 모두 일곱 명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중 한 명이지요. 치열한 선발전을 거치고 당당히 대표선수로 뽑혔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드룸 부부는 아들이 올림픽에서 거둘 성적에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 아들이 대회를 통해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그것을 자산으로 삼아 앞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기만 바랄 뿐이다.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아들이기에 앞으로도 잘할 것입니다. 미카엘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G

글·조용탁 기자

“장애인의 희망 함께 만듭시다”

“지적장애인은 노 없는 조각배… 같이 물살 헤쳐나갈 다른 배 필요합니다”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지 여사가 스페셜올림픽 참관을 위해 평창을 방문했다. 1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주요 경기장을 돌며 선수와 관계자들을 격려한 수지 여사는 1월 30일 오전 열린 평창글로벌개발서밋에 참석해 세계 주요 리더들과 함께 ‘평창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2월 1일 귀국한 아웅산 수지 여사의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호소를 전한다.

중앙포토

아웅산 수지 여사는 지적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스페셜올림픽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배운 다음 돌아가 더 나은 미얀마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 살기 좋은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평창에 왔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는 지적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적장애인들이 더욱 인간적 삶을 누리며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할 방법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수지 여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지적장애인정책과 제도, 그리고 한국 지적장애인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희망했다. 수지 여사는 “한국의 정책과 제도를 공부하면 미얀마의 지적장애인을 돕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지 여사는 군부에 맞서다 무려 15년간 가택연금을 당했다. 그는 지적장애인도 비슷한 심정일 것이라고 말한다.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느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스페셜올림픽으로 벽을 넘자

“집안에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홀로 집안에 갇혀 매일 잊히는 삶이지요. 무력한 자신이 밉고, 나를 찾지 않는 이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힘들었지만 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제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언젠가 세상이 변하면 집 밖에 나가 민주화된 미얀마에서 살 수 있으리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들은 희망을 가질 권리조차 부인당합니다. 지적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편견과 무지. 수지 여사가 꼽은 소외의 원인이다. 선입견과 잘못된 지식이 쌓여 결국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긴다. 지적장애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가 쌓아 놓은 울타리에 갇히고 만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평생을 살아야 한다. 벽을 무너뜨릴 도구가 필요하다. 수지 여사는 스페셜올림픽이 아주 효과적 도구라고 말한다.

“원하지 않는 격리를 당했던 지적장애인들이 스페셜올림픽을 통해 인간으로서 권리를 되찾고 있습니다. 지난 45년간 스페셜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해 지적장애인들의 권리를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 170개국에서 모인 400만 명의 지적장애인 선수들이 기쁨을 발산하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미얀마에서도 그동안 2,300명의 선수가 스페셜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제가 스페셜올림픽에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수지 여사는 지적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독립적 인격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지 여사는 지적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이 늘어날수록 빈곤층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세금과 성금으로 지적장애인을 지원하는 비용보다 이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도록 돕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지적장애인 아이를 둔 어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린 지적장애인의 삶은 노 없는 조각배 같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물결을 따라 흐를 뿐입니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커다란 파도를 그저 바라만 보다 가라앉는 운명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배를 끈으로 묶고 같이 물살을 헤쳐나갈 다른 배가 필요합니다. 이런 도움을 누가 베풀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서 답이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우리입니다.”

글·조용탁 기자

중앙포토

글로벌개발서밋에 참석한 세계 지도자들은 ‘평창선언’을 통해 지적장애인들의 복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어젠다를 제시했다.

‘평창선언’ 채택한 글로벌개발서밋

귀를 기울일 때 변화는 시작된다

‘지적장애인들의 유엔총회’인 글로벌개발서밋이 지난 1월 30일 스페셜올림픽이 열린 평창에서 개막됐다. 이번 서밋의 화두는 지적장애인들의 권익보호였다.

서밋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나경원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장, 아웅산 수지 여사 등 전세계 지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글로벌개발서밋은 지적장애인들의 복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주제를 설정하고 앞으로 열리는 대회에서 이러한 정신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공식개막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각 분야별로 나뉘어 ‘변화를 위한 촉매’, ‘글로벌 협력 강화’, ‘사고의 확장과 실행의 향상’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글로벌개발서밋 참석자들은 전세계 200만 명의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국제사회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평창선언’을 채택했다.

평창선언은 ‘경청을 통한 변화(Hearing Voices, Making Changes)’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이 제목에는 지적장애인을 향한 일방적 도움이나 지원보다 그들 스스로 주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평창선언은 크게 세 가지 소주제로 이루어졌다. 지적장애인의 자기주도적 삶,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다. 평창선언은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지적장애인의 소외와 빈곤 등 현안에 대처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셜올림픽 주최국인 한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의 장애인복지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캐나다에서 온 모니카 웰스 씨가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 있는 위시트리에 아들 바렛의 선전을 기원하는 '소원쪽지'를 매달고 있다.

지미연 기자

1 개막식에서 캐나다선수단과 가족들이 환호하고 있다.
2 지난 1월31일 오후 대회 첫 번째 시상식이 열렸다. 스노보딩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모두 시상대에 오른 모습이 인상적이다.
3 한국선수들이 쇼트트랙 예선경기를 치르고 있다.

스페셜올림픽조직위 / 연합 / 스페셜올림픽조직위

승패 없는 승부 물결치는 감동

110개국 1만1,000명 참가 행복한 시간

"기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항의를 받아들입니다.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열린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스노보딩 상급경기에 참가한 마이클 체이스 로더(25·미국)는 자신의 경기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참가자 12명 가운데 꼴찌였다. 그는 대회 운영자에게 다시 뛰겠다고 요청했다. 대회 운영자는 마이클의 요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처럼 지적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 스페셜올림픽의 가장 큰 특징은 승자와 패자가 따로 없다는 점이다. 자신의 기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나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일반 올림픽이나 패럴림픽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특별한 용기와 도전정신을 가진 지적장애인들의 축제 스페셜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7박8일간 펼쳐지는 대회에는 110개국에서 1만 1,000명이 참가했다. 개막 다음날인 지난 1월 30일 오전부터 7개 주종목과 시범경기인 플로어볼의 예선전이 시작됐다.

경기장에서는 참가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도, 화려한 기술도 찾기 어렵다. 하지만 스페셜올림픽만의 특별한 울림이 관중을 감동으로 이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한국을 찾은 선수와 가족 등 손님들을 모시기 위해 다양한 손님맞이 행사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회 개막 전에는 전국 6개 시·도 52곳에서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개막 전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선수와 가족이 머무르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와 강릉 관동대선수촌 인근에서는 다채로운 축제가 펼쳐져 대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G

글·조용탁 기자

지미연 기자

이종남 박사는 고령지농업연구센터 실험실에서 육종중인 딸기 종자들이 한국 농민에게 큰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딸기 종자 로열티 시대 열어 보람"

여름품종 '고하'와 관상용 '관하' 만들어 해외시장 진출 성공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지난 1월 27일 경제2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딸기박사'로 불리는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센터 이종남 박사를 언급하면서 한국종자산업 육성을 요청했다. 농촌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중요해진 종자산업 육성에 매진해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박사가 밤을 지새우며 개발한 딸기 종자는 지금 로열티를 받고 해외로 수출 중이다.

달랏은 베트남 남쪽에 있는 작은 도시다. 해발 1,500미터에 위치한 고산도시로 1년 내내 기온이 서늘하다. 요즘 고령지농업연구센터 이종남 박사는 달랏으로 전화를 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가 개발한 여름딸기 품종인 '고하'의 베트남 재배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베트남 하면 고온다습한 동남아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지만 달랏은 달라요. 한국의 대관령 같은 환경입니다. 고랭지 채소를 기르기에 적합한 곳이어서 딸기 새 품종 개발 이후 시험재배지로 계속 염두에 두었던 후보지입니다."

이 박사는 주위에서 딸기박사로 통한다. 1999년부터 새 딸기 품종 개발에 매진했다. 원예학과를 나온 그는 1993년부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산하 고령지농업연구센터에서 파프리카 품종 개발로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1999년부터 고온재배가 가능한 여름딸기 품종 개발에 주목했다. 한국에서 주로 먹는 딸기는 저온에서 재배하는 겨울딸기다. 딸기의 재배 계절이 겨울이다 보니 1년 내내 딸기 농사를 짓고 싶은 농가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다. 여름 재배가 가능한 딸기 품종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과질이 딱딱하고 당분이 부족해 농민들 사이에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 박사는 맛있는 여름딸기 개발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딸기 연구를 시작했다.

그가 새 딸기 품종 개발에 뛰어든 또 하나의 이유는 로열티였다. 이 박사의 본 업무는 농민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는 새 품종과 재배법 개발이었다. 하지만 애써 새로운 재배법을 찾아내도 결국 수익은 종자의 저작권을 가진 글로벌 종자기업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았다. 자신의 기술과 노력으로 거둔 결실이 우리 농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현상을 목격한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새 품종을 직접 개발해보자는 야심이었다.

"제가 하루라도 빨리 새 딸기 품종을 개발해야 외국 회사에 내는 로열티도 줄이고, 그만큼 농민에게 도움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연구에 매달린 이유입니다."

뿌리 1,000개서 10개 선택하기 7년 반복

그의 야심 찬 도전에는 만만찮은 난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고추·상추·배추 같은 채소는 씨앗의 유전자만 분석하면 새 품종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런데 유전자 구조가 훨씬 복잡한 딸기 품종 개발은 채소와 차원이 다르다. 1만 개를 교배하면 1만 개의 특성이 모두 다르게 나올 정도다. 그만큼 우수 종자를 고르기조차 어려운 분야다. 그리고 그 작업은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한다. 이 박사가 딸기 품종 개발을 3D업종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1,000개의 딸기 뿌리에서 쓸 만한 종자는 10개 정도 나옵니다. 이를 교배해 다시 1,000개로 만든 다음 다시 10배 정도 배양합니다. 이런 작업을 7년 정도 한 다음에야 적합한 품종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연구 개발에 매진한 사이 정부는 시간을 벌어줬다. 한국은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했다. 이 동맹에 가입하면 한국에서 재배하는 외국 품종에 대해 농민들이 로열티를 내야 한다. 정부는 끈질긴 협상 끝에 주요 품종에 대한 로열티 적용 시점을 10년 후로 미뤘다. 2012년까지 한국 고유 품종을 개발하면 농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2012년까지 새 품종 개발을 위해 이 박사는 하루 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연구에 매달렸다.

한국산 여름딸기 고하 품종은 그가 연구를 시작한 지 9년 만인 2008년 탄생했다. 영국산 딸기 '플라멩코'와 네덜란드산 딸기 '엘란'을 교배해 개발한 새 품종이다. 딸기 수입 품종은 포기당 종묘 비용이 1,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고하는 300원에 불과하다. 그 이득은 온전히 농민들에게 돌아갔다.강릉과 무주에 고하 재배단지가 생겼다.

지난해 외국에 준 종자 로열티만 205억원

한국에서 고하 품종이 자리를 잡자 이 박사는 해외 진출로 눈을 돌렸다. 그가 주목한 지역은 동남아였다. 동남아 지역은 대체로 무더운 기후 탓에 딸기가 귀한 편이다. 그만큼 딸기 값이 비싼 편이어서 현지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라도 품질 좋은 종자라면 구매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고령지농업연구센터의 상급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이를 알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베트남 달랏처럼 딸기 재배가 가능한 고산지역을 염두에 두고 현지 조사에 나섰다. 2012년 3월 캄보디아, 6월에는 베트남 현지재배를 위한 계약에 성공했다. 농촌진흥청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품종특허 출원도 완료했다. 지금은 말레이시아 시장을 알아보는 중이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딸기를 6개월 정도 수확할 수 있지만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는 1년 내내 수확할 수 있어 현지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고령지농업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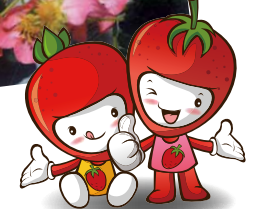
한국산 여름딸기 '고하'.

한국산 관상용 딸기 '관하'.

그의 새 품종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 종자시장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5퍼센트에 그친다. 2012년 한국이 줘야 할 종자 관련 로열티는 205억원에 이른다. 그는 "국산 품종으로 로열티를 받는 시대를 열어 보람이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가 고하에 이어 세계에 소개하려고 준비한 품종은 관상용 딸기인 '관하'다. 관하는 1년 내내 분홍색 꽃을 피우는 관상용 딸기 품종이다. 주요 수출국으로 일본을 겨냥한다.

이 박사는 "앞으로 다양한 딸기를 개발해 한국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동시에 세계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조용탁 기자

"3050 여성 잃어버린 꿈 깨워드립니다"

여성들의 섬세하고 차분함 장점 되살려 지난해 3,708명에게 일자리 제공

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일을 쉬는 이른바 '경력단절여성'이 부지기수다. 정부가 이런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그곳이다. 전국적으로 100여 곳에 달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취업상담과 교육은 물론 취업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김보금씨는 2012년 총 3,708명의 여성에게 새 일자리를 찾아줬다.

김보금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은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줄 뿐만 아니라 취업 후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맡았다.

"자식 키우고 살림하느라 그동안 힘드셨죠? 30대부터 50대까지 잃어버린 여성들의 꿈,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김보금(54) 전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겸직)은 '경력단절여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 호탕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전국에 100여 곳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운영 중이다. 김 센터장은 20여 년 동안 중학교 교사를 거쳐 대학에서 소비자학을 강의한 교수 출신이다. 2012년 1월 지금의 자리에 임용됐다. 지난해 12월 5일 현장근무를 끝내고 막 사무실로 돌아온 김센터장을 만났다.

지난 1년간 경력단절여성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경력단절여성을 어떻게 육성해 다시 사회로 내보낼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1주일에 2~3회씩 왕복 3~4시간이 넘는 9개의 시·군·구 거점 센터를 찾아 다니며 지역별 산업과 연계해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현장에서 교육과정도 직접 구상했고요. 지역별·산업체별 수많은 인사담당자를 만나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강점은 섬세함과 차분함

지역별 틈새산업을 공략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존 여성취업센터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니 가사도우미·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편중돼 있더군요. 지역별로 원하는 인재는 다른데 경력단절여성들의 선호직종은 오로지 사무직뿐이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했습니다. 여성들의 장기 취업을 위해서는 전북의 10대 전략산업과 맞물려 틈새산업을 공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새 3,708명을 취업시킨 비결이 있다면요?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과 취업하려는 여성들의 의지, 취업설계사의 노력 등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진 셈이지요. 교육과정을 마치면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기업과 다리를 놓은 것도 주효했고요. 여성들이 취업한 후에도 기본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708명을 취업시킬 수 있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직접 홍보까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주부이기 이전에 일하는 여성으로써 도전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려주고 싶어 공익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남성 청·장년층에 비해 정보력이 부족한 여성들에게 '취업'이라는 주제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직접 광고 카피를 작성해 방송사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홈쇼핑에서도 마감이 되어갈수록 상품 판매율이 급속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처럼 일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여성들의 잠자는 '열정'을 끄집어내기 위한 방편이었지요."

현장에서 느낀 경력단절여성들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섬세함과 차분함입니다. 집안일과 요리, 아이 돌보기 등 모든 것이 손으로 이뤄지는 거잖아요? 취업상담을 하다 보면 유독 손재주가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용접이나 자동차부품 조립 같은 일을 권유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취업 의지만 갖고 오세요. 열정 꺼내드려요"

여성들을 용접분야 등에 취업시킬 때 우여곡절도 많았다면서요?

"제가 가본 현장의 남성직원들은 40대가 넘어가면 술·담배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손 떨림이 심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더군요. 이런 현장에는 '섬세함으로 무장한 여성들을 투입하면 좋을 텐데'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게차 운전이나 용접 등으로 이들 여성의 영역이 넓어졌고, 회사에서도 남성들 못지않은 실력으로 인정받습니다."

기억에 남는 취업 성공 사례도 많을 듯싶은데요?

"아이 셋을 키우며 20~30대를 보내 사회적 활동이 전혀 없는 결혼 12년차 주부가 있었죠. 대학 졸업 후 집안살림만 하셨던 분이어서 누가 말을 걸면 두려워할 정도로 매사에 소극적이었어요. 먼저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의기소침함을 떨쳐내도록 했어요. 그런 다음 책을 좋아하는 성격에 맞게 작은 도서관 관장님으로 취업시켜드렸습니다."

50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사례도 있나요?

김보금 센터장은 취업정보가 부족하고 재취업의 두려움이 큰 30~50대 경력단절여성들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럼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50대 여성 한 분이 딸의 손에 이끌려 센터를 찾았어요. 흔히 말하는 학벌도, 자격증도 없었지만 음식솜씨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장점을 살려 김치제조업체를 소개해 취업에 성공했죠.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줘 감사하다는 치사도 들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김치가 외국으로 수출되고, 그 과정을 통해 음식문화 전도사로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목표도 생겼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그분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올해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해졌다면서요?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 17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북의 전략산업 가운데 하나인 LED 산업이 중심이 되는 반도체 전문가 양성교육과 완주군공업단지의 맞춤형 교육인 품질검사원,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섬유산업 종사자 양성과정이 대표적입니다."

취업률 상승도 기대해볼 만하겠는데요?

"수요 조사는 물론 인사담당자와 함께 회사에 필요한 인원을 미리 책정한 상태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지난해 대비 20%가량 취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취업설계사들이 분야별·직종별 담당자로 배치돼 회사가 원하는 인재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도 할 계획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조언한다면요.

"30~50대 경력단절여성들은 취업정보 부족에 앞서 재취업의 두려움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을 원하면서도 잠재된 능력을 모르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지요.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만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잠자는 당신의 열정을 꺼내 제2의 인생을 꿈꿀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언제든 가까운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글과 사진·박하나 객원기자

첫마을아파트 단지와 금강을 가로지르는 한두리대교. 조형미를 살려 건설한 한두리대교는 세종시의 주요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다.

세계적 명품도시 발전 잠재력 충분

대전 – 세종 – 청주 잇는 광역생활권 입지 갖춰 서울 버금가는 대도시 가능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들의 발전 과정에는 닮은 데가 있다. 인근 대도시와 거리가 자동차로 1시간30분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반면 자동차로 1시간 이내의 가까운 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해 나간다. 세종시는 대전·청주와 인접한 데다 정부기관 이전으로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커 세계적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역량이 풍부하다.

2006~07년 약 10개월 동안 북미지역을 자동차로 여행한 적이 있다. 이때 도시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경험적으로 느낀 바가 있다. 50킬로미터 안팎, 즉 자동차로 대략 한 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도시들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발전해 나간다는 점이다. 반면 100킬로미터 이상, 즉 차로 1시간30분 이상 걸리는 곳에 위치한 두 지역은 별개의 광역생활권을 형성할 확률이 크다.

미국 중동부 지역의 경우 피츠버그(펜실베이니아)·클리블랜드·콜럼버스·신시내티(오하이오)·루이빌(켄터키)·내슈빌(테네시) 등이 대표적이다. 독립적인 광역권으로 발전한 이들 도시는 나열한 순서대로 인접해 있다. 하지만 근거리에 붙어 있지 않고 차량으로 이동할 때 최소한 1시간30분 이상 걸린다. 이는 미국 동부지역도 마찬가지여서 뉴욕·필라델피아·워싱턴 등은 미국 동해안을 따라 연이어 있음에도 별개의 광역도시권을 형성한다.

현대적 도시가 뒤늦게 형성된 한국의 모습도 비슷하다.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등 광역도시 사이의 거리는 자동차로 1시간30분 이상 걸린다. 반면 다른 광역도시인 인천과 광역도시 급인 수원·성남은 서울과 하나의 생활권을 이룬다.

미국은 대륙국가인 반면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다. 이런 차이에도 두 나라의 도시 형성 과정과 발전 양상이 닮은 이유는 무엇일까? 선뜻 짚이는 대목은 주거지에서 직장까지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다. 보통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7~8시간 잠을 잔다고 가정할 때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쏟아부으면 정상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최근 세종시의 탄생은 여러모로 주목할 만하다. 도시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리적 측면에서 세종시의 입지조건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남동쪽으로 대전과 북동쪽으로 청주를 잇는 중심에 위치한다. 대전과 청주는 최근 십 수년 동안 우리나라 대도시들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도시로 꼽힌다.

다양한 인적 구성은 도시 성장의 큰 장점

대전의 인구는 155만 명 안팎으로 추산되고, 청원군과 통합을 앞둔 청주는 80만 명이 넘는다. 이들 두 도시에 현재 10만 명 가량이 거주하는 세종의 인구를 합치면 세종과 이를 중심으로 한 주변 권역은 그 규모가 250만 명 남짓인 대구와 맞먹는다.

교통과 수송을 기준으로 한 지리적 여건에서도 청주–세종–대전권역은 대구와 크게 차이가 없다. 대구의 동구청과 대구 달성군청 사이의 거리는 약 30킬로미터다. 북쪽인 청주시청에서 남쪽인 대전시청까지가 40킬로미터이니 중간에 끼어있는 세종시가 연계되면 이들 3개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지금보다 더 밀착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을 가운데 두고 북서쪽의 일산동구청과 남동쪽의 분당구청이 서로 50킬로미터가량 떨어져 있

세종시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는 자동차 행렬이 계속 이어진다. 세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적지 않음을 방증한다.

세종시의 대표적 교통체계인 BRT(간선급행버스)는 세종시가 대전과 청주를 아우르는 광역도시권의 중심에 위치함을 상징한다.

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전–세종–청주가 하나의 광역생활권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행정구역 차원에서 세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특별자치시다. 세종으로 이전한 중앙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세종을 특별한 위상을 가진 도시로 만든다.

세종은 당장 인구규모에서는 대전이나 청주에 비할 수 없이 적다. 그러나 청주–세종–대전을 잇는 광역생활권의 중심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은 잠재조건을 갖췄다. 인적구성에서도 서울에 버금가는 다양한 색채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과 청주 역시 비교적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을 끌어모아 성장했다. 이런 점에서 세종은 서울의 축소판이 될 확률이 크다. 대전이나 청주보다 인적 구성은 한층 다양하되 서울에 버금가는 도시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

모든 여건이 완벽한 도시는 없다. 그러나 좁게는 청주–세종–대전을 하나로 묶는 광역생활권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세종만한 입지 여건을 가진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세종은 장차 서울과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 3대 광역도시권에 진입할 잠재력이 가장 풍부한 곳이다. 도시는 어떤 면에서 생물과 같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한다. 50년 후 혹은 100년 후 대한민국은 또 다른 행정중심도시를 원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에 앞서 대전–세종–청주가 하나의 단일생활권으로 자생력을 확보한다면 세계가 주목하는 광역도시로 거듭나는 것도 가능하다. 만일 그런 시대가 온다면 후세들은 행정중심도시인 세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하지 않을까?

글과 사진·김창엽(자유기고가)

느리게 걷는 숲길은 내려놓으라 하네

길섶 들풀처럼 살아온 인생 동백터널 빠져나오면 앞날을 사는 법 알 수 있어

현대인의 발걸음은 늘 바쁘다.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앞만 보고 달린다. 고민과 목표를 짊어진 사람들에게 거제 내도의 숲은 천천히 걸으라 말한다. 동백나무·편백나무·구실잣밤나무 등 온갖 나무가 보내는 고결한 숨결을 맡아본다.

내도에 자리 잡은 숲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원시 숲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존됐다.

일주일만 바다를 못 봐도 입이 마르고 몸이 바짝바짝 타 들어간다. 태생이 섬이어서 그럴까? 바다를 보면 물 먹은 건해삼이 부풀어 오르듯 몸도 다시 생기를 되찾는다.

거제의 섬, 외도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외도 바로 옆의 섬 내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안과 밖이 있듯 거제에는 내도와 외도가 있다. 거제 구조라 마을에서 바깥쪽에 있는 섬이 외도고 안쪽에 있는 섬이 내도다.

외도 너머로는 해금강이 굽이굽이 흐른다. 사람이 가꾼 섬이 외도라면 내도는 자연이 기른 섬이다. 원시림이 살아 있는 내도는 개발하지 않은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온몸으로 보여준다.

동백나무·편백나무·구실잣밤나무·감탕나무·까마귀쪽나무·소나무 거목들로 가득 찬 내도의 숲에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넘친다.

2011년 처음 내도 숲길을 걸으며 이 작은 섬에서 어떻게 원시림 보존이 가능했는지 궁금했다.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문득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내도는 예부터 물이 부족했다. 숲이 무성하면 대체로 물이 풍부한 법인데, 내도는 땅을 파도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오랜 세월 사람 손길 닿지 않은 원시의 숲

섬사람들은 물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물이 부족하니 섬에는 언제나 소수의 사람밖에 살지 못했다. 사람이 적게 산 까닭에 숲이 보존될 수 있었으리라. 많은 사람들로 섬이 복작거렸더라면 원시의 숲은 진작 사라지고 말았을지 모른다.

오전 11시 구조라항에서 내도행 여객선에 올랐다. 겨울이어서인지 여객이 드물다. 세 명의 낚시꾼과 함께 배를 탔다. 여객 입출항 현황판을 보니 오전 9시 첫 배를 탄 여객은 고작 7명뿐이다. 방문객이 적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다. 섬의 숲길을 온전히 혼자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숲을 전부 내 차지로 삼는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다.

내도 숲길 입구에는 오래된 동백나무들이 신장처럼 숲을 호위하고 서 있다. 기나긴 세월 모진 바닷바람을 견디며 속이 단단해진 동백나무는 도끼 날로도 뚫을 수 없을 만큼 견고하다. 철갑으로 무장한 동백나무 방어선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숲길 초입은 약간 가파른 편이다. 그러나 나무와 흙으로 만든 계단 덕분에 비탈을 오르는 어려움을 덜 수 있다. 호흡을 가라

동백나무·소나무·편백나무 등 나무터널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걷다 보면 상쾌한 바닷바람을 느낄 수 있다.

앉히고 계단을 오르자면 오른쪽 비탈에 편백나무가 등장한다. 하늘을 뚫을 기세로 솟아오른 모습으로 내도 숲의 위용을 과시한다. 숲이 마치 "평생을 살아오면서 대체 몇 사람의 목숨이나 살려봤느냐"고 묻는 듯하다.

울창한 숲 1헥타르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산소는 5톤에 달한다. 사람 18명이 1년 동안 숨쉴 수 있는 양이다. 사람을 살려내는 숲은 제 한 목숨 부지하는 데 급급한 인간들을 타박하지 않는다. 오히려 "험한 세상 살아내느라 수고했다. 어서 오라"며 품을 열어 감싸주고 등을 다독인다.

나무는 나쁜 세균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테르펜이라는 방어물질을 뿜어낸다. 이를 통칭해 피톤치드(phytoncide)라고 일컫는다. 피톤치드는 그리스어의 '식물(phyton)'과 '죽인다(cide)'가 합쳐진 단어다. 피톤치드는 인체에 기생하는 나쁜 병원균과 해충, 곰팡이를 퇴치하는 효능이 있다. 인체가 피톤치드를 받아들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장과 심폐기능이 강화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

나무 중에서 피톤치드를 가장 활발히 생산하는 1인자는 편백나무다. 소나무 등 다른 침엽수보다 세 배 이상 많은 피톤치드를 뿜어낸다. 내도 숲에서 편백나무는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세월의 풍파에 시달린 도시인의 몸과 머리를 정화해주기에는 충분하다.

숲길 걸으며 자신과 대면하면 막힌 길 열려

이 아름다운 원시의 숲을 오래 즐기고 싶다면 걸음을 최대한 늦추기를 권한다. 섬이 작으니 내도의 숲길은 모두 걸어도 3킬로미터에 불과하다. 급하게 걸으면 숲길이 금방 끝나고 만다.

내도 숲에서는 달팽이나 거북이처럼 느리게 걸어야 한다. 느리게 걸을수록 숲이 주는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천천히 걷는 동안 몸속의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고 숲의 정령이 불어 넣는 맑은 기운을 받아 정신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편백나무 숲을 지나면 미끈하면서도 우람한 근육을 지닌 동백나무들이 앞을 가로막는다. 겨울에 핀다고 해서 동백(冬柏)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상 한겨울 혹한을 뚫고 꽃을 피우는 동백은 많지 않다. 한동안 추위가 계속된 탓에 동백은 아직 피지 않았다. 동백 꽃망울은 숨죽이고 날이 풀리기만 기다린다.

겨울에 피는 동백은 찬찬히 살펴봐야 더 예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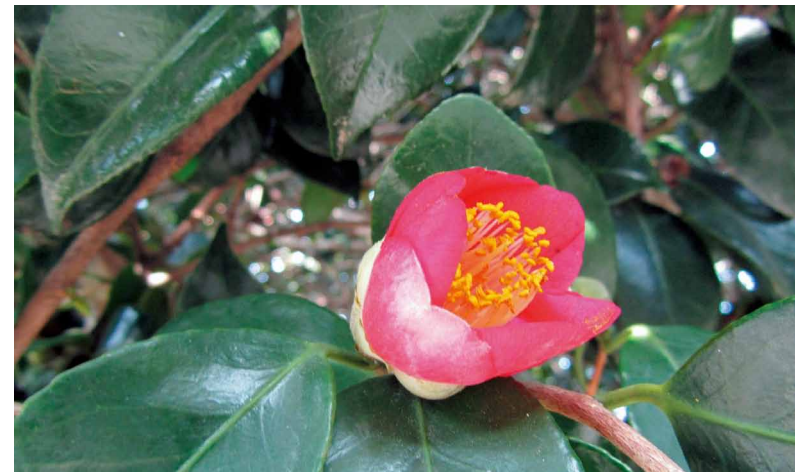
대부분의 동백꽃은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에 살짝 피었다 지고 봄에 만개한다. 하지만 가을이나 봄에 피는 동백은 진짜 동백이 아니다. 눈밭에서 피어나는 설중매가 진정한 매화인 것처럼 엄동의 추위를 뚫고 피어야만 진정한 동백이다. 혹한을 뚫고 피어난 내도의 동백은 진정한 동백인 만큼, 숲 속에서 동백을 만난다면 찬찬히 살펴볼 일이다.

잠시 숲이 일렁인다. 바다에 잔물결을 일으키며 몰려온 바람이 내도의 숲을 흔든다. 오수에 빠졌던 나무들이 흠칫 놀라 잠을 깬다. 섬이나 바닷가 숲의 생태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더러 바닷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파도소리로 착각하기도 한다. 섬의 숲을 흔드는 바람에는 바다의 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내도의 바다와 숲은 바람의 도움으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서로 안부를 묻고 또 묻는다.

가파른 계단의 끝자락, 구실잣밤나무 아래 사람 형상의 바위 하나가 서 있다. 마치 아이를 업은 모습이다. 애기업은바위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다.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나 사물에 이름을 붙여주면 사랑이 샘물처럼 퐁퐁 솟아나는 걸 느낄 수 있다.

묘지 앞 세 갈래 길, 선택은 여행자 몫

이제 숲길의 막바지다. 동백나무가 만든 터널을 빠져나오면 오래된 소나무가 도열해 있다. 솔밭 사이 비탈진 언덕 양지 녘에는 무덤 몇 기가 나란히 누웠다. 섬에서 태어나 섬에서 살다 죽어간 이들의 무덤. 봉분은 일제히 해변을 향해 봉긋하게 솟아올랐다. 해변의 묘지 앞에서 세 갈래 길이 여행객을 맞이한다. 선택은 여행객의 몫이다.

누구나 가슴속 문제를 하나씩 안고 섬을 찾는다. 내도의 숲을 걷다 보면 자신과 대면하며 문제를 풀어나갈 기회를 얻게 된다. 동백나무 터널을 빠져나가면 숲길은 끝나고, 나룻배는 여행객을 다시 뭍으로 데려다줄 것이다.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숲의 정령이 속삭인다. 절망을 이고 온 자 절망을 털어버리고, 슬픔을 안고 온 자 슬픔을 날려보내고, 고통을 이고 온 자 고통을 벗어버리고 다시 길을 떠나라고.

시인 발레리는 해변의 묘지에서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고 노래했다. 바람이 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내도의 숲 끝자락으로부터 밝은 빛이 쏟아지고 흐릿한 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G

글과 사진·강제윤 (시인·인문학습원 섬학교 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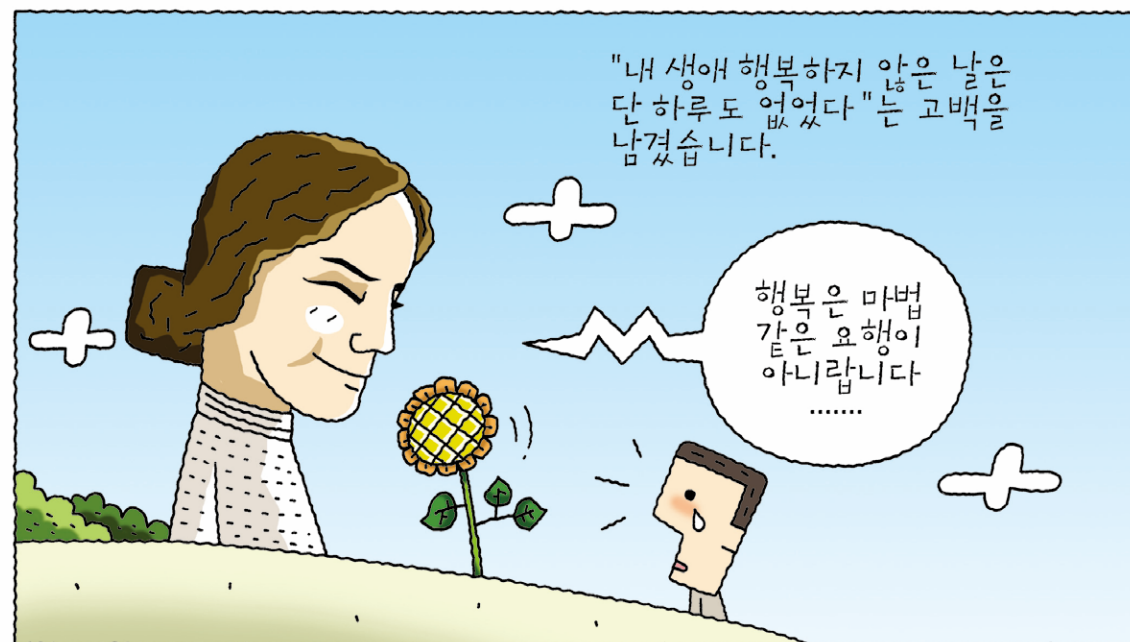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구조라항의 내도행 여객선터미널에서 배를 탄다. 운항시간은 내도 출발 오전 9시·11시, 오후 1시·3시·5시다. 풍랑이 거세면 배가 못 뜰 수도 있으니 출발 전에 배가 뜨는지 확인해야 한다. 요금은 왕복 1만원. **여객선터미널(055-681-1261)**

잠잘 곳 내도의 민박집들은 나무 이름을 따 이름을 지었다. **호박나무민박(055-681-9088), 포구나무민박(055-681-1069), 감나무민박(055-681-1044), 동백나무민박(055-681-1042), 대나무민박(055-681-1164), 무궁화민박(055-682-1103), 팔손이나무민박(055-681-8296), 느릅나무민박(055-681-1043), 은행나무민박(055-681-7797)**이 있다. 이 외에 **내도펜션(011-864-0028)**과 장승포와 지세포, 구조라에 많은 펜션·모텔·호텔이 있다.

문의 거제시 관광안내소(055-639-3399/3499)

행복이란?

글과 그림 · 최영순

행복한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삶입니다. -헬렌 켈러